

논문 개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한 발달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다원화·세계화라는 개념이 교육에 있어서도 자주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문화시대로서, 그러한 문화 예술과 직결되는 창의성은 국제화 시대에서 경쟁하기 위한 최고의 화두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비인간화, 몰개성화를 양산하는 교육으로 특징지어져 비판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공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 저변에는 교육의 본질을 잃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교육전문가들의 안일함, 사교육의 팽배 등 다양한 요소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육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자각과,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나타난 것이 대안학교이며 90년대 중반 이후 대안교육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대안학교는 종래의 공교육에 대한 대안적인 교육이나 학교형태를 모색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독자적인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를 말한다. 대안학교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자유학교형 대안학교, 생태학교형 대안학교, 고유이념 추구형 대안학교, 재적응형 대안학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안학교는 종래의 학교와는 달리 학생 자체를 존중하고, 전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시대에 알맞은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미술교육이 추구하는 이념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혁에 알맞

은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고, 주입식 교육에 치우쳤던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교과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술은 그 중요성에 비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시와 직결되는 이른바 주요 교과에 밀려 부수적인 과목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안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다른 교과와 동등한 위치에서 미술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안학교의 이념적 특성 아래 학생들에게 자유와 창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재고하고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안학교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사례들을 검토하고, 대안학교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장점들을 참고로 하여 미래 사회에 알맞은 미술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앞으로 공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위치를 올바르게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종래의 낡은 패러다임 속의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영역과 연계, 통합하는 방식으로 도약해 나가야 한다. 이제 미술 교육의 목적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시대의 미술은 우리의 삶속에 숨 쉬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앞으로의 삶을 보다 넓고 풍요롭게 느끼며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3
II. 대안학교의 개념 및 현황	6
1. 대안학교의 개념	6
2. 대안학교의 특성	8
3. 대안학교의 등장배경	11
4. 대안학교의 현황 및 유형	14
III. 대안학교 미술교육의 특성 및 사례	20
1. 대안학교 미술교육의 특성	20
2. 국내 사례	21
(1) 세인고등학교	21
(2) 광진 도시속작은학교	24
(3) 밀머리 미술학교	29
(4)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33
3. 국외 사례	37
(1)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	37

(2) 미국의 시티에즈 스쿨	45
(3) 영국의 섬머힐	50
(4) 일본의 도쿄 슈래 학교	53
IV.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황 및 새로운 동향	56
1. 미술교육의 의의 및 목적	56
2.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역사	58
3.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60
4. 중등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 및 필요성	64
5. 현대 미술교육의 동향	66
V. 대안학교의 유용성을 활용한 미술교육	70
1. 미술관·박물관 관람을 통한 현장 교육	70
2. 청소년기의 미술치료교육	74
3. 다문화 미술교육	76
4. 생태주의 미술교육	81
VI. 결론 및 제언	85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 <표-1> 대안학교의 특성
- <표-2> 교육과학 기술부에 의한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 <표-3> 한국 대안학교 유형별 학교의 예
- <표-4> 광진도시속작은학교 학습원리
- <표-5> 광진도시속작은학교 미술치료 프로그램
- <표-6> 밀머리 미술학교 프로그램
- <표-7> 밀머리 미술학교 미술 워크숍 프로그램
- <표-8> ‘점점 프로젝트’ 계획표
- <표-9> 신구 교육과정의 비교
- <표-10> 학교에서 미술관·박물관을 이용한 감상학습의 절차
- <표-11> 치료적 미술활동 프로그램 계획안
- <표-12> 중학교 1,2,3학년을 위한 미술문화 프로그램

도 판 목 차

<도판 1~2> ‘따뜻한 원손’ 활동 모습

<도판-3>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프로그램

<도판 4~5> 발도르프 학교교육의 모습

<도판-6> CAS의 카타로그와 학습코스

<도판-7> 2005 아트에듀페스티벌 ‘Who我you’의 진행 모습

I. 서론

1. 연구의 목적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는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구성원을 길러내는 것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가치관, 태도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교육은 입시교육과 맞물려 학교 해체, 교실 붕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현실은 ‘한국 공교육의 위기’라는 말에서 더욱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물질적 풍요에서 정서적, 문화적 풍요로 가치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교과목 중에서도 예술교육은 정서교육의 모체가 되며, 인간의 감성을 통하여 영혼과 정신을 조형화하는 미술교육은 이미지와 감동을 통한 감성적 인식이 수반되는 교육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교육에서 미술교육은 7차 교육과정 이후 그 시수가 줄어들었고, 일반 입시와도 무관한 과목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실태이다. 또한 학생들은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제작해야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미술수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화려한 대중 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종래의 틀에 박힌 미술 수업과 지도 방법은 미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편, 최근 공교육의 위기 속에서 그 심각함을 자각하고 등장한 여러 가지 시도 중의 하나가 바로 대안교육 운동으로, 이는 교사, 학부모, 교육이론가 등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안교육은 1990년대 이후 입

시 위주의 공교육에 대처하자는 움직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98년에는 초·중등교육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성화 학교라는 새로운 제도에 의해 학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대안학교가 기존의 학교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제도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교육적 실험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기할 만한 일은, 대안학교의 교육 활동 중 미술교육이 청소년들의 정서와 창의성을 계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대안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점수나 대학입시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서적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교보다 감성교육 및 예술교육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대안학교의 사례와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공교육에서 개선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등장한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이론적 배경으로서 대안학교의 개념과 특성, 등장배경, 현황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대안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의 교육과 차별적인 면이 무엇인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대안학교의 사례를 통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현대 미술 교육의 동향을 통해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의 성격과 특성을 활용하여 공교육에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미술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성을 가진 인물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도 양적 팽창에만 몰두한 나머지 질적인 면에서는 실패했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어 왔으며, 이 때문에 교육에서 얻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입시를 위주로 한 교육으로 인해 전인적인 인간의 육성에 소홀함으로써 그 결과, 대학에 가서도 자신의 전공밖에 모르는 “전공바보”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주지교과에 밀려 예·체능 교과는 독창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술교육은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은 산업사회가 가져온 혼란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의 정서와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정서가 메마른 사회에서 미술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분명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에 공헌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도 미술은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문헌 연구 방식을 택하였다. 대안학교의 이론적 배경과 미술교육의 이론에 관해서는 국내 문헌, 단행본,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였고, 대안학교에서의 미술교육 사례는 대안학교 카페와 사이트, 각종 문헌, 정기간행물, 대중매체 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II장에서는, 먼저 대안학교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안학교의 사례조사에 앞서 대안학교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대안학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현황 및 유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대안학교와 관련된 선행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대안학교 미술교육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였다.

- 국내사례: 세인고등학교, 광진도시속 작은학교, 밀머리 미술학교,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 국외사례: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 미국의 시티에즈 스쿨, 영국의 섬머힐, 일본의 도쿄 슈레학교

대안학교의 사례는 주로 석사학위 논문, 학교 소식지, 단행본, 대안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및 카페를 통해 조사하였다.

Ⅳ장에서는,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의의 및 역사, 현행 교육과정과 새로이 일부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 중등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 및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현 시점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대 미술 교육의 동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각종 단행본 및 석사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등을 분석하였다.

Ⅴ장에서는, 대안학교의 유용적 성격과 특성을 활용하여 공교육에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오늘날의 미술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적으로 ‘제작하고, 보고, 느끼고, 말하며 이해한다.’는 일련의 활동들이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서 통일적으로, 또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미술교육은 표현과 제작의 측면에 편중되어 예술에 대한 향수적이고 비평적인 면을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바람직한 미술교육은 이 양면의 조화와 균형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을 지각하고 향수하며, 이해하고 수용하는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¹⁾

1)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서울:시공사, 2003, p.21.

이러한 미술교육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대안학교에서의 미술 교육활동은 보다 융통성 있고 분방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안학교 교육활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미술교육의 내용과 현황에 대해 비교 검토함으로써 공교육제도하의 미술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로써 공교육과는 다른 시각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대안학교의 실천들을 통해 미술교과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술교육의 개선방향에 미약하나마 시사되는 점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Ⅱ. 대안학교의 개념 및 현황

1. 대안학교의 개념

대안학교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대안’에 대한 정의가 먼저 구체화되어야 한다. ‘대안(代案)²⁾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alternative’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전적으로는 어떤 안에 대신하는 안, 둘 혹은 셋 이상에서 하나를 택할 여지가 대안이다. 대안학교는 이러한 안을 실천하는 학교로 어느 경우든 현재의 학교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아가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안을 실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면서 교육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을 기존학교와는 달리하는 등 특별한 배려나 조치에 의한 교육이 필요한 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관계법의 규정에 있어 상당한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이처럼 대안학교는 학교종별이 아니라 학교의 설치·운영 형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교원 및 학생도 정규학교 교원 및 학생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Fantini는, 대안 학교는 일차적으로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대안 형식으로 시작하여 발전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대안학교의 일부는 자유학교(free school)라고 명명되었으며 196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³⁾ Copper는 교육백과 사전에서 ‘대안 학교는 표준적인 공립학교들이 제공하는 것과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교’라고 정의

2) *교육학 용어 사전에서의 의미: 정해진 목적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창출되는 여러 방안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9; 차재원)

3) Fantini, M. D. (1976). Alternative Education, New York : Doubleday

하였다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이전에도 기존의 학교교육이 지닌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벗어나려는 다양한 실천을 모색하는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5).

먼저 대안에 대하여 고병헌은 대안학교에서 말하는 대안은 기존의 학교 교육에 자리잡고 있는 이념적인 성향이나 인간관, 자연관, 사회관, 세계관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즉, 문제 해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의 선택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대안학교는 단순히 새로운 학교와는 다르다. 새롭다는 것은 행동적·제도적·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고의 변화, 가치 형성의 변화, 기존 가치들의 근본적인 전제들과 현 사회 질서와 학교제도가 뿌리를 두고 있는 토대 그 자체의 변화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6).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안학교란 ‘공립학교들이 제공하는 전통적이고 정형화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도록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특수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들을 제공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법에서는 ‘대안학교의 개념을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목표로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하는 학교’7)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안학교는 기존의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나, 정부통제학교에서 제안하는 전통적인 것보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 등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가족과 아동의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학교이다.

4) Cooper, B. S. (1994). Alternative schools and program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Kidlington : Elsevier Science Ltd.

5) 교육부, 『대안학교 설립 운영 지원 계획』, 1999, p.422, 재인용

6) 고병헌, 『세계의 변혁과 교육적 대응-새로운 삶의 철학과 대안교육, 새로운 교육의 탐색』, 고려대학교 교육사 철학연구회, 서울:내일을 여는책, 1997, p.9재인용.

7) 전게서, 교육부 자료, p.422 재인용.

여기서 전통적인 것보다 특별하고 다른 경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경향이 될 수도 있고 약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 수도 있으며 또 기존의 형태를 유지한 채 내용만 바꿀 수도 있으며, 혹은 형태 그 자체의 변화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대안학교는 공교육체제가 구축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획일적이고 지식위주의 편중된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대안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학교의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고를 가진 교사가 대안적인 교육내용(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경험과 자유를 바탕으로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대안적 교육방법으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학교이다.⁸⁾ 대안교육의 정확한 개념정의는 쉽지 않지만 현실교육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다.

2. 대안학교의 특성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한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 새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모순이 제도화되면 새로운 사회를 향한 비판과 운동이 발생하듯, 사회 속의 교육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공교육 체제의 모순도 비정상적으로 제도화되면 이에 대한 대안교육운동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대안교육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기존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⁹⁾

첫째, 학생들의 참다운 선을 함양시키지 못한다.

8) 이선숙,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이야기』, 서울:교육과학사, 2001, pp.14-19.

9) 김태용, 「대안학교에 있어서의 미술교육: 경기,충남권의 대안학교의 미술교육」,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11

둘째, 전통적인 학교가 인간 본성을 속박하고 질곡시킨다.

셋째, 학습과 강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넷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등생, 열등생으로 구분하는 시험, 자격증, 등급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제도교육의 병폐를 고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대안교육운동이다. 대안은 선택되어 질 수 있거나 실제로 선택된 활동의 형태나 행동으로, 여기서는 독특한 문제의식과 특성들이 내포되어야 한다. 심성보는 대안학교는 아동 중심적 교수 학습과정으로 교사는 학습안내자이고, 균형 있는 학문 활동으로 경쟁보다는 협동을 중시하는 학교로 일반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학생에게는 새로운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열린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의 모든 결정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¹⁰⁾

현재 우리나라에 전개되고 있는 대안학교의 특성들은 학교마다 매우 다양한 가치체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그 공통적인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¹¹⁾

첫째, 초·중등단계 대안교육의 출현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체제가 갖는 억압구조와 결핍구조를 배경으로 한다. 사회변화나 학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문화나 학교운영 시스템, 다수 학생들이 소외를 감수해야 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등이 대안교육의 수요를 낳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참여희망 학생의 특성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업능력이 극히 낮은 학생이나 일탈로 인한 문제 학생은 물론 특정분야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학생,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학생들까지 망라되어 있다.¹²⁾

10) 심성보, 『한국 대안학교 운동과 과제』, 교육사회학 연구, 1998, pp.213-215, 재인용

11) 박준기, 「초·중등단계 대안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대안교육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05, p.32

셋째, 초·중등 학생들의 대체교육으로서 등장한 대안교육에서는 이념적으로 ‘자유와 자율’을 중시한다. 즉 학생들의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가치 즉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중시한다. 또한 생명존중 사상 또는 생태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넷째, 교육내용 면에서는 ‘삶의 학습’을 중시한다. 교육내용의 특성을 보면 배움과 놀이가 구분되지 않는 통합적 교육과정을 추구하며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및 지역의 다양한 교육소재들을 프로그램화한다.

다섯째, 다른 특성으로는 물리적 특성을 들 수 있다. 각 형태의 대안교육 기관에서는 공히 ‘소규모 학습장’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는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게 하고 이 같은 분위기에 서 학생의 특성이 발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상의 특성도 확인된다. 운영주체는 종교기관이나 시민 사회 단체, 개인, 공동체, 조합, 학교법인, 사단법인, 지자체 등 다양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최근 학부모 조합 결성을 통해 정규형 학교 설립·운영을 시도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과 후 활동, 주말·계절 프로그램 등의 학교 병렬형 대안교육뿐 아니라 독립적인 전일제 학교 운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전일제 학교의 확산 움직임이 불가피하게 국가와 학부모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의무교육을 취학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장애가 아닌 일반 학생들의 법적 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안학교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12)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념은 ‘부적응아 교육’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 중에서 중도탈락자나 소위 문제아를 위한 교육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이 다양하듯이 교육기관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교육 내·외에서 대안교육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편협된 인식이 극복될 필요가 있다.

<표-1> 대안학교의 특성¹³⁾

구 분	특징
대안학교의 등장배경	공교육체제의 억압구조와 결핍구조
참여 학생의 특성	학업부진 학생, 부적응 학생, 정서적 장애 학생, 이탈 행위 학생, 특정분야 특기 학생, 학교교육 거부 학생 등
대안학교 교육 이념적 특성	개인의 자유, 자율성, 공동체 가치, 생태가치 존중
대안학교 교육 내용적 특성	배움과 놀이를 결합한 통합적 교육과정 (삶의 학습)
대안학교의 물리적 특성	소규모 학습장(인간적 규모- 인격적 관계 중시)
대안학교의 운영상의 특성	정규형, 전일제 교육기간의 증가 경향

3. 대안학교의 등장배경

대안교육은 20세기에 들어서 보편화된 근대 교육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 통제를 주요 기능으로 하여 확립된 공교육 제도는 개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획일화된 기준과 내용, 방법에 의존함으로써 원천적 교육적 소비와 비인간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¹⁴⁾

1960-70년대에 대안학교의 설립이 붐을 이루었던 미국은 당시 미국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와 과거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유산이 반영된 1960년대 영국의 초등교육 개혁의 영향 이라는 두 가지 배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미국 공립학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논쟁이 일기 시작했고, 이러한 제도적 제한점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환경이 요청되었

13) 김태정, 「도시대안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20

14) 박지연, 「간디학교의 영어수업 사례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9

다.

그 무렵 영국에서는 <플라우덴 보고서>¹⁵⁾를 정점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학교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교육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등장배경이 말해 주듯이 이 시기의 미국의 대안교육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핵심적 생각은 아이들을 기존의 학교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일 뿐 근대 교육의 시대적 한계에 대한 자각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대안학교라는 의미는 따로 없고, 수천 개의 프리스쿨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다양한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고 공립학교들 가운데서도 대안학교 못지않게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학교들도 많다.

영국의 경우 대안학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모색되었던 교육개혁 운동의 영향과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교육이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었다면 이 새로운 교육은 유기체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물질과 비물질,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를 통일적인 존재로 포괄하려는 시도로서 교육적으로는 환경교육이나 평화교육, 아동의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이다. 환경위기에 대한 자각이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주의적 세계관은 학생들의 자발성의 원칙과 함께 대안교육의 기본적인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다.¹⁶⁾

현재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들도 기존 학교제도에 대한 비판과 생태주의적

15) 이 보고서는 영국의 교육부 장관이 1963년 8월 영국 중앙교육심의회에 지시하여 결성된 위원회의 보고서로서, 장관은 그 위원회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으로의 이행에 대한 자문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위원회는 플라우덴 여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967년 10월 28일 에 "어린이들과 이들의 초등학교"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1926년, 1931년, 1933년의 세 번에 걸친 헤도우 보고서의 아동 중심적인 사상과 그에 따른 모든 권고가 그 후 30년간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실천되었는가를 조사, 검토하고 권고하는 일이 목적이었다.

16) 김명수·김홍태, 『대안교육운동 탐색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교수논총, 제 14권 제1호, 1998, p.100

세계관 등이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대안학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 역시 전술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사회의 특성이나 변화과정과 관련하여 대안교육이 등장하는 양상은 다소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몇 권의 비판적인 교육수상집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무렵 탈학교론이나 인본주의적인 학교교육 비판서들이 출간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마르크스주의적 성향의 급진적 비판들도 소개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은 대안적인 학교의 모색보다는 기존 학교교육의 개혁과 아울러 이를 위한 사회 개혁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85년 출간되어 필화사건을 일으킨 ‘민중교육’은 이러한 흐름을 집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대안 교육이 1990년대 초를 넘어서면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는데 대안교육이 1990년대 들어 급속하게 확대된 배경에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움직임 외에도 교육당국의 정책적인 육성의지가 자리잡고 있다. 교육당국의 대안학교 육성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치유하려는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 이는 교육 당국이 대안학교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둘째, 대안학교를 획일화된 공교육을 개혁하는 방편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대안학교가 획일적인 학교 형태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수단인 되는 동시에 대안학교의 교육적 실천이 기존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러한 대안교육은 획일적인 공교육제도가 초래하고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반발에서 촉발됐지만 그 저변에는 교육권 사상에 대비되는 학습권 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공교육제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다양한 대안

교육 실천과 정부의 대안학교 육성 정책은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교육 외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동일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근대국가의 출범과 함께 도입된 의무 공교육 제도는 국민을 교육의 대상인 수동적인 객체로 상정했다. 따라서 국가를 대리한 교사가 학생을 교육시킬 권리인 교육권이 사상적 배경이 됐다. 반면 대안교육은 이런 교육권에 대비되는 학습 활동의 자유, 학습 기회의 보장, 교육 선택의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 학습권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4. 대안학교의 현황 및 유형

대안학교의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므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는 설립목적, 이념적 기초가 다르며 추구하는 교육목적과 구체적인 교육방법, 내용, 대상 학생들에게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기존의 학교와 조금만 색다른 형태의 교육을 시도하는 학교를 모두 대안학교라 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대안학교의 범주로 넣기에는 해석상의 무리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안학교의 현황을 살펴본 후 대안학교의 이념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한 이중태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안학교의 현황은 현재 교육과학 기술부의 보고에 따라 <표-2>와 같다.

<표-2> 교육과학 기술부에 의한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2008. 5월 현재)¹⁷⁾

시도	학교명	지정 년도	설립 별	모집 인원	소재지	교원수	학생 수	비고 (법인)
부산	지구촌고	2002	사립	30	연제구 거제1동 50	9	60	복음

17) <http://www.mest.go.kr/>

대구	달구벌고	2003	사립	40	동구 덕곡동 75-5	15	101	덕성
인천	산마을고	2000	사립	20	강화군 하점면 삼흥리 460	10	56	복음
광주	동명고	1999	사립	40	광산구 서봉동 518	17	120	동명
경기	경기대명고	2002	공립	40	경기도 수원시 군선구 당수동 122	18	110	수곡
	두레자연고	1998	사립	40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화산리 692-11	16	120	두레
	이우고	2003	사립	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13-1	23	212	이우
	한겨레고	2006	사립	2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10-1	11	34	전인
강원	전인고	2005	사립	60	춘천시 동산면 원창1리 923-1	8	46	전인
	팔렬고	2006	사립	40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252	6	31	이화
충북	양업고	1998	사립	40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181	16	116	청주 카톨릭
충남	한마음고	2003	사립	40	천안시 동면 장송리 418-1	14	94	한마음 교육문 화재단
	공동체비전고	2003	사립	40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75-1	16	92	선천
전북	세인고	1999	사립	60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	19	152	DIA 세인
	푸른꿈고	1999	사립	40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865	12	91	푸른 꿈
전남	영산성지고	1998	사립	40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77	16	110	영산 성지
	한빛고	1998	사립	75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11	21	230	거이
경북	경주화랑고	1998	사립	40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333	14	113	삼동
경남	간디학교	1998	사립	40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22	17	120	녹색
	원경고	1998	사립	40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292	17	94	원명
	지리산고	2004	사립	20	산청군 단성면 호리 523	11	52	학림
고등학교 21교						306	2,154	
경기	현산중	2002	사립	40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883-1	11	58	전인
	두레자연중	2003	사립	20	화성시 우정읍 화산7리 692-11	9	60	수곡 두레
	이우중	2003	사립	60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 13-1	14	185	이우
	한겨레중	2006	사립	20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10-1	8	45	전인
	중앙기독중	2006	사립	3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10	90	중앙

					73-6			
전북	지평선중	2003	사립	40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99-1	13	82	원진
전남	성지송학중	2002	사립	20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219-1	10	65	영산 성지
	용정중	2003	사립	24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186	11	84	보성
중학교 8교						86	669	
합계 29교						392	2,823	

※ 중앙 기독교중(경기) 2006년 개교

먼저, 대안학교를 처음으로 유형화한 것은 1996년 1월 대전에서 ‘새로운 학교 만들기 모임’에서였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새로운 교육 문화실천’으로 보고 제도교육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제도 안, 제도 곁, 제도 밖’ 세 가지로 구분 했다.

첫째, ‘제도 안’이란 거창고등학교나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처럼 기존의 학교제도 안에서 내용적으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제도 밖’은 기존의 학교제도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통해 실천하려는 경우로 변산 ‘공동체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제도 곁’이란 기존의 학교교육을 그대로 둔 채 방과 후, 주말, 방학을 이용해 학교교육이 담당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유형분류는 우리사회에서 대안교육이 대두, 확산되는 초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실천의 내용적 측면을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종태(1998 : 23-25)는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단 여기서 계절제나 방과 후 프로그램 형 대안학교는 제외한다.)¹⁹⁾

첫째, 자유학교형 대안학교이다. 영국의 섬머힐(Summer Hill)학교가 이러

18)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2002, 서울:박영률 출판사, pp.39-40.

19) 이종태, 『대안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육연구』, Vol.1, 1998, pp.23-25

한 유형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주된 동기는 종래의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아이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교사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아동들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기초로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학교의 설립자인 니일은 ‘아이들을 학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대안학교는 공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던 1970년대에 미국에서 붐을 이루었으며, 독일에서도 ‘자유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70년대에 붐을 이루었고, 1992년에 설립된 일본의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닮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섬머힐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초기의 간디학교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생태학교형 대안학교이다. 이 유형의 전형은 1982년 설립된 영국의 하트랜드 지방의 ‘작은 학교(Small School)’라고 할 수 있다. 인도 태생의 평화 운동가이자 생태주의자인 사티쉬 쿠마르에 의해 설립되었고, 마을 안에서 소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활동을 교육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마을의 다양한 생산자들이 교사로 봉사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생태와 노작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학교의 결합을 중시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환경위기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와 유사한 학교들이 영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셋째, 재적응 학교형 대안학교이다. 일반학교에서 부적응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서 우리나라의 많은 대안 학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남 영광의 성지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로 일반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도저히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대상으로 교사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교육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성지고등학교가 성공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되자 1998년 교육부에서 학교 경영적인 지원을 주며 일정한 설치기준만 마련되면 학교 설립을 허용해 주었다.

넷째, 고유이념 추구형 대안학교이다. 앞의 세 가지 유형은 대안적으로 추구하는 교육목적이 비교적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이 유형의 대안학교는 독특한 고유이념과 방식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으며, 이 학교는 인지학²⁰⁾이라는 독특한 철학을 체계화 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상을 바탕으로 1919년 설립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6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학 전 교육부터 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과정을 운영하며, 수업 방식이나 학급운영방식이 매우 특이하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일체화된 교육을 지향하는 홍성 풀무농업기술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념에 따른 이 분류는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계절제나 방과 후 프로그램형 대안학교가 제외되는 단점이 있다.

또 이종태의 분류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정규학교형으로 일반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거창고등학교, 풀무원 농업기술고등학교, 영산 성지고등학교가 있다. 둘째로는 계절학교형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대구 민들레 학교, 경남 산청의 숲속 작은 마을 학교, 부산창조학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형이 있는데 학생들의 학교활동이 끝난 후 학교나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과 후 학교,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여럿이 만드는 학교 등이 있다.

한편, 김희동²¹⁾은 1998년에 들어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등장한 뒤 기존의

20) 창시자는 루돌프 슈타이너(Steiner, Rudolf, 1861~1925)이며, 인지학(Anthroposophy)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사람을 뜻하는 Anthropos와 지혜를 뜻하는 sophia의 합성어이다. 인간중심의 사고에 의한 인간학. 인간과 세계의 정신적인 본질을 직관하도록 인간의 인식능력을 발달시키는 이론.

21) 1993-97년 어린이 자치 공동체 세우기 모임, <민들레 만들레>에서 자유교육을 시도한 후 2003 푸른 숲 학교를 개교하고 2005년 꽃피는 학교로 개교하였다. 현재 대전, 하남 꽃피는 학교, 하남 꽃피는 아이들의 집 공동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안학교의 정규학교 형태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는데, 김희동에 의한 대안학교 유형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한국 대안학교 유형별 학교의 예

분류기준		분류 기준에 따른 학교의 예
학교형	인가형	풀무(홍성), 성지(영광), 간디(산청), 푸른꿈(무주), 양업(청주), 원경(합천), 화랑(경주), 한빛(광주), 세인(전주), 두레마을(화성), 동명(광주), 국제복음(인천)외 다수
	비인가형	공동체학교(변산), 들꽃 피는 학교(안산), 마을학교(예천), 실상사 작은학교(무주), 하자스쿨(서울), 중학교 과정 간디학교(산청)외 다수
특학교형	공부방형	방과 후 교실, 주말학교, 지역 공부방
	계절학교형	민들레 만들래(대구), 청마래(양산), 한새(부산), 물꼬(서울), 숲속의 작은학교(울산), 자연학교(두말리) 외 다수
탈학교형	협동체형	탈학교 모임(서울)등 그 밖의 학습공동체들
	가정학교형	공식적인 숫자를 추정할 수 없는 상태지만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Ⅲ. 대안학교의 미술교육 특성 및 사례

1. 대안학교 미술교육의 특성

대안학교의 미술활동은 ‘감성의 함양과 같은 미술활동이 인간에게 주는 정서적 측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교육 제도 하의 미술교육보다 더욱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고 있다.

대안교육의 목적이 전인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그 이상에 가까운 교과가 미술 교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억눌려 있던 청소년의 감수성, 상상력, 판단력, 표현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안학교 미술교육의 수업 내용을 보면 교과서에 의존하는 일반학교와는 달리 그 학교의 이념, 지향점, 특징, 지역적 특색에 의해 정해진다. 교사가 임의로 학생들에게 맞추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 또한 수업방식도 다양하며 수업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 수업내용에 따라 끝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수업을 하더라도 중간에 맥이 끊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다.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수업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생 수가 많지 않고, 여유 있는 수업시간으로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다.

둘째, 교사중심이 아닌 학생중심의 수업으로 학생 스스로의 활동에 의한 수업이다.

셋째, 열린 교육이 가능하다. 교과서라는 틀에 매이지 않고, 다양한 내용을 보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학습할 수 있다.

넷째,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위주의 수업이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더 중요시하여, 사고의 다양성, 주의 깊은 관찰력,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 성실한 노력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2. 국내 사례

(1) 세인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 60조 3항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1조 1항의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정부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리, 사랑, 순종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세계인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교육은 5차원 전면 교육인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능력 등의 5가지 기본능력을 전반적으로 교육하여,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재능(Talent)을 최대한 신장시켜, 21세기를 주도할 다이아몬드 칼라(Diamond-Collar)의 세계인으로 기르고 있다.²²⁾

1) 교육과정 및 운영사항

세인 고등학교의 교육이념은 크게 기독교 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인데 핵심 교육과정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5차원 전면 교육으로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능력, 중심의 통합교육으로 국민 공통 교육을 완성하고, 모든 학생이 한 가지 하고 싶은 것만을 선택하여 집중 공부한다. 이에 따라 1학년에서는 3RSCN(읽

²²⁾ <http://www.seine.hs.kr/>

기, 쓰기, 계산, 컴퓨터, 인터넷) 중심의 국민 공통교육과 5차원 전면 교육의 기초훈련을 하고, 2학년에서는 자신의 인생 설계와 인생 설계 중심의 선택 교육을 하고, 3학년에서는 1,2학년 교육을 바탕으로 선택 심화 교육을 한다.

둘째,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세 단계, 즉 선포하는 것(원리를 알려주는 것), 가르치는 것(실천 가능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 치유(삶의 방향이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것) 등을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실행한다. 이것은 획일적인 척도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개인 특성을 파악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적 특성화 교과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협력교수와 협력교사의 연계를 맺어 보다 전문적인 교과개발에 노력하고, 연습 복습 시약점 목록표를 작성하여 약점위주의 공부를 권장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게 담임을 정하여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셋째, 교육 생산 활동을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구성이다. 이것은 황폐화, 퇴폐화, 비인간화 되어가는 학생들의 생활문화를 종식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긍정적 자아개념과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바른 가치관을 지닌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규모의 학급을 운영하고 학년 당 40명 학급 당 20명으로 전교생이 120명이 되는 소규모의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넷째, 학생의 재능(Talent)개발 프로그램 운영이다. 이것은 다양성에 바탕을 둔 열린 교육 실천으로 학습장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학생의 개성과 특기를 살리는 평가를 지향하여 창의력을 배양하는데 힘쓴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견학을 통하여 지식위중의 교육을 지양하고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화에 발맞추어 세계 여러 나라 학교를 방문 교류케 한다.

다섯째, 사랑 규율 자율교육이다. 따라서 1학년은 사랑교육을 통해 자아발견과 내적상처를 치유하고, 2학년은 규율교육으로 건강한 자아를 토대로 바

른 자세와 체계적인 규율을 훈련하며, 3학년은 자율교육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전문인으로 성장하도록 자유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2) 미술수업의 내용

세인고등학교의 미술과 교육의 목적은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체험하는 것으로 고정관념을 깨고 감상능력을 배양하며, 미적 창조에 대한 경험을 하는데 두고 있다.

1학년에는 미술수업이 없고 2학년은 국민 공통 교과로 ‘미술’이 1시간이 있고 3학년은 일반 심화·선택교과로 ‘미술실기’가 2시간 편성되어 음악, 체육, 미술 중 한 교과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심화선택교과는 2학년 3학년(예체능)이 통합수업을 실시하는데 선택 1에는 실내악과 미술사, 체육개론 선택 2에는 국악개론, 미술이론, 스포츠 과학수업이 있다. 1학기에는 소묘와 회화 2학기에는 미술사와 미술이론이 각각 2시간씩 편성되어 있다.

정규 수업 후 달란트 학습에는 정밀묘사반과 입시미술반이 개설되어 있는데, 정밀 묘사반은 정밀묘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입시미술반은 미술대학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 각각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수업내용은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으로 흥미나 요구 수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국민 공통 교과인 ‘미술’과 ‘미술실기’의 교육내용으로는 펜화와 자연물을 이용한 조형물 만들기, 장승 만들기, 벽화 그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론수업은 표현기법과 미술사 등이다. 소묘시간에는 정밀묘사를 하고 있고 미술이론 시간은 미술이론 전문 교과서를 바탕으로 미술 감상 수업이 진행된다.

실기 수업 시 사용되는 재료로는 연필, 나뭇가지, 잉크, 한지, 종이, 자연물

등으로 강의, 시범, 토론과 협동 학습 등을 통한 미술실이나 학교주변의 야외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현장 견학학습 시에는 대학교 미술대학 방문을 통하여 미술전공자들의 작품을 보고 감상하는 기회를 갖는다.²³⁾

세인고등학교의 미술교사는 “ 수업시간은 재미있어야 하고 재미있으면 학생들은 흥미를 갖습니다. 형식적인 목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미술의 인지적 영역으로 미술사, 작가, 심화된 이론을 함께 재밋고 흥미 있게 하여 문화적 경험을 쌓게 되고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에 일부분을 기여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것을 갖게 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방침이고 다른 교과에서도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페인팅, 유화, 동판화 같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서 새로운 것을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예술을 즐기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²⁴⁾라고 미술수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세인고등학교의 미술수업이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체험하는 것에 두고 있는 만큼 해마다 시대에 맞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발하고 있다.

(2) 광진 도시속작은학교

광진 도시속작은학교는 2004년 10월에 설립되어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고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와 광진 구청에서 지원하는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상처를 치유하며, 꿈을 가질

23) 박지연, 「대안학교의 미술교육 사례를 통해 바라본 창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p.56

24) 박근이, 「대안학교 미술과 교육현황-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p.45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 교육 목표 및 학습원리

광진도시속작은학교에서는 대안교육 체험 프로그램인 “Free school”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안교육을 직접 체험해보고 자신의 삶의 대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며 도시전체가 배움터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의 목표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의 기회제공이다. 가난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 두거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한 채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자기 관심사에 초점을 둔 맞춤형 인턴십 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에 따라 직업을 찾아보고 실제로 필요한 기능을 직업현장에서의 멘토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습망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향상하는데 있다. 학교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를 허물어 다양한 학습자원을 가진 도시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육이 삶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넷째, 만남과 배움을 통한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 및 자아실현이다. 몸과 마음이 머무는 안정된 곳에서 자신이 가진 배움의 욕구를 찾아 자신의 삶을 확실히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다섯째, 정보화, 다양화, 평생교육의 시대에 맞춘 대안적 학습 만들기이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각자가 지닌 취미, 관심, 능력, 그리고 삶의 목표에 따른 학습지원을 통해 십대들의 다양한 학습,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한다.

교과는 4학기 필수공통 과정으로, 기초교과와 특성화교과가 있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여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기발견의 기회를 갖는다. 기초교과는 1학기 이상 연계되어 구성된 교과로,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갖는다. 특성화 교과는 한 학기 동안 운영되는 교과로, 기본학습능력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지며 삶의 대안을 찾는다. 아래의 <표-4>는 광진 도시속작은학교의 학습원리를 요약한 것이다.

<표-4> 광진 도시속작은학교 학습원리

학습원리	내 용
포트폴리오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생활과 활동은 글, 사진, 영상으로 기록된다. · 자서전 쓰기, 졸업작품 제작 · 평가와 진단이 있는 포트폴리오. · 학교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
문화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도 축제일 수 있다. · 삶의 대안을 찾는 다양한 활동 · 말과 글, 역사, 디자인, 영어, 21C 문화코드를 찾는 노력은 계속 된다.
시민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진짜 기본능력을 찾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작업 · 철학, 인권, 환경, 경제, 예비시민 아카데미
체험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얹이 하나가 되어, 현장에서 배우는 실제적 체험! · 직업인 초청특강, 여행프로젝트
공동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돌아보고 타인과 소통하며, 공동체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체득하는 학습과 활동 · 봉사학습, 집단상담, 체육
맞춤 학습	나만의 학습스타일을 찾는 1:1 개별학습
인턴십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직장 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능력을 쌓으며, 자신의 능력과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다.

2) 미술수업의 내용

광진 도시속작은학교 미술프로그램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편안하고 부담 없이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거나 작품에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속작은학교의 학생들 대부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 부적응자이어서 정서적인 문제를 다소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미술치료와 색채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미술 치료 프로그램은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미술 전공자가 진행하며 공동체 작업을 통해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며 토론을 한다. 이러한 미술치료활동은 자퇴경험이 있는 대안학교의 학생들에게 사회와 가정, 학교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아래의 <표-5>는 도시속작은학교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12회기에 걸쳐 실시한 수업내용이다.

<표-5> 미술치료 프로그램(25)

회기	주제	목표	활동내용	준비물
1	모임 성격 및 소개		자유롭게 자신을 이야기 한다	
2	이름으로 꾸며보기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해 보는 시간	여러 가지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 또는 영어로 적고 꾸민다.	여러 가지 색지, 채색도구
3	지점토 이용한 감정 만들기	감정을 형상화시키고 타인과의 소통을 하는 경험을 한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이상이 함께 하면서 주무르고 만지는 과정 속에서 감각적 느낌을 경험한다.	마분지, 지점토, 크레파스, 색연필, 파스텔
4	플라쥬	자신의 자아 찾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당한 그림을 찾아 붙여 구성하고 상호 이야기해 본다.	마분지 1장, 한지, 잡지, 가위, 풀
5	공동작업	자기성찰과 타인과의 관계성찰 및 경험	종위위에 한 사람씩 누워서 신체를 본뜨고 꾸며본다.	마분지 1장, 크레파스 1개, 싸인펜 1

				개, 4B연필 1개
6	이름상징 그림	자기와의 만남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	자신의 이름을 예쁘게 써본 후 예쁘게 꾸며본다.	마분지, 펜마카, 크레파스 1개, 싸인펜 1개, 파스텔
7	셀프 박스	자신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하면서 내면, 외면을 탐색	잡지를 이용하여 상자를 꾸며 붙이고 형상화된 자신을 바라본다.	상자, 기타 꾸밈재료, 색종이, 가위 2개, 딱풀 4개
8	바디 트레싱	자기 집중과 대인관계의 경험	두 명이 서로의 얼굴을 본떠준다.	모조지전지 2장, 소포지 전지 2장, 붓
9	지점토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봄으로써 연속성, 자기 직면, 자아상 탐색	자신의 얼굴 만들기	지점토, 채색 도구, 물
10	물감놀이	자존감을 강화시켜 사회성 향상을 이룰 수 있게 한다.	2인 이상이 아무런 형식 없이 물감의 다양한 색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그리기 도구, 전지, 물감
11	몽타주	타인의 생각을 유추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성찰 및 경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사진을 오려붙이고, 인물이 하는 말을 상상하여 써본다.	사진, 도화지, 가위, 풀
12	단체화 그리기	자기성찰과 타인과의 관계성찰 및 경험	전체 회기종안에 작품을 감상한 후 종결의 느낌을 그린다.	모조지, 전지, 그리기(수채화)도구

색채심리 수업은 색채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데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표정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바디 랭귀지처럼 색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색채와 사람의 관계를 연구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실내를 꾸미는 공동체 작업 벽화그리기와 자연물을 이용한 설치작업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나 아이들의 내적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5) 김준수, 「도시형대안학교 미술프로그램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41

(3) 밀머리 미술학교

밀머리 미술학교는 2002년 7월에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입주한 미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적 가로지르기(Cross Over)를 꿈꾸는 창작교육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예술과 생활, 도시와 농촌, 창작과 교육을 매개하는 경계에 서고자 하며, 물질/정신면에서 ‘재생’을 키워드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꿈꾸고 실현하는 대안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 예술교육 시범단체 4곳 중 한 단체로 선정되어 올해로 4년째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해오고 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60개의 단체가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박찬국 밀머리 미술학교 학교운영자는 “예술에는 교육적 매개기능이 있다. 주제성, 소통, 관계중심활동, 경험과 과정 등을 중시하고 있는 공공미술과 문화예술교육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밀머리 미술학교는 변화하는 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노력들의 집합이며 새로운 실험의 장이자 교육과 생산의 기지라고 할 수 있다.

1) 교육목적 및 프로그램

밀머리 미술학교는 작가, 시각문화 전문가, 건축가, 영상, 만화, 환경 생태 전문가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야간 가로지르기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가와 지역주민,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간을 개방하여 생활과 예술의 틈새를 줄이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변 자연경관과 문화 유적지 관람진행을 원칙으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놀 수 있도록 배려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놀이적 감수성이 항상

살아 있도록 연구하고 Resure와 Culture가 만나는 Reculture를 지향하며 다양한 예술적 장르를 넘나든다. 또한 예술적 심미적 기능에 머물지 않고 사람과 사람, 자연과 자연, 사람과 사물간의 단절된 관계와 소통을 열어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으며 아프고 쓰다듬고, 상처를 위로하며 분노와 연민의 감정을 기쁨, 감동, 즐거움과 똑같이 소중이 여기는 예술을 지향한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소리놀이 프로젝트,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 워크숍, 문화적 리더십 워크숍, 커뮤니티 아트 컨설팅, 멤버쉽 네트워킹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밀머리 미술학교는 도리넬슨(Doreen Nelson)교수의 'CBE(City Building Education)' 프로그램 등에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도리넬슨은 작가출신으로 CBE프로그램은 1969년 캘리포니아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CBE는 한 마디로 도시와 거리를 주제로 한 학습 방법론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지적 탐구와 창조성 개척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술 수업의 내용

밀머리 미술학교의 미술 프로그램은 주 1회 2시간의 프로그램을 위해 일주일 내내 고민하게 만드는 고민덩어리 프로그램과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따뜻한 원손'이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기전문화대와 함께 하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시설의 다운 증후군과 자폐증상의 어린이들, 사회 복지시설의 어린이, 일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미술놀이 과정이다. 진행 멤버는 기획자 겸 주 강사 2명, 미대생 보조강사, 지역 고등학생 자원 봉사자, 참여시설의 사회복지사 4, 5명이 항시 참여한다. 장애·비장애 어린이, 지역의 자원봉사 학생, 작가 또는 작가지망생 등 3개의 그룹으로 축이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서로 대상화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나누어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전체를 관통하는 핵심단어는 애초부터 ‘치료’가 아니라 ‘소통’이었다. 성과를 말하기엔 아직 멀었지만 미술교육의 대안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미술놀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개방되고 자신과 화해하는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 성과이다. 고등학생 중에는 미술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보다 사회 봉사활동으로 20시간의 의무시간을 메우기 위해 참여한 학생들이 더 많다. 40시간 이상 시달리는 치열한 노동에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은 보충수업과 야간수업까지 빠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미술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양상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따뜻한 왼손’ 경험의 축적은 소외되고 단절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은폐된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로써 각 학교와 학교바깥,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²⁶⁾ 밀머리 미술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6>과 <표-7>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표-6> 밀머리 미술학교 프로그램

Art Camp	예술을 놀이와 문화로 끌어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1박2일의 캠프 (월 1회)
따뜻한 왼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재미있는 미술 체험워크샵 (주 1회)
자유 캠프	주말 및 공휴일에 개별 신청하여 자유로운 캠프를 하며 밀머리미술학교의 아트워크샵 체험
시각문화 체험교실	생태체험과 시각문화워크샵을 연계하여 심성발달에 중요한 수련활동과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통합적으로 진행
여름 캠프	“오른쪽 뇌로 그림 그리기” “초가집 짓기” 등 생활과 미술이 만나는 즐거운 활동들 속에서 감성을 키우고, 다른 사람과의 창조적 관계를 형성하고 인식할 수 있는 주제 캠프

26) 박찬국, 『학교 밖과 안을 이어주는 대안교육』, Art in Cuiture 8월호, 2003, p.93

<표-7> 밀머리 미술학교 미술 워크숍 프로그램²⁷⁾

제 목	내 용
흙놀이와 도자 굽기 ① 연극놀이를 겸한 토우무대 ② 줄라 웃기는 컵 만들기	① 첫날 흙놀이를 마친 후, 모둠별로 이야기가 있는 토우무대를 만든다. 연극이 아니라 상황을 연출하는 가벼운 스토리로 구성한다. 1일 건조 후 짚불에 굽는 이벤트를 갖고(감자 구워먹기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다.) 발표무대를 만든다. ② 흙의 오감 체험적 이해와 유희를 즐기고, 도자만들기 과정을 통해서 생태, 문명, 문화의 코드를 감지한다. 단순히 그릇 만들기 등 기능적 체험을 벗어나 자유로운 창작정신을 끌어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릇 만들기'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15일 전 사전 제작 후 초별구이가 끝난 상태에서 캠프 첫날 채색작업을 한다.
자연물 설치 워크숍 ① 에코 풍경과 정물 ② 에코 퍼포먼스	① 주변 사물과 신체를 이용한 역동적이고 집중력 있는 작업으로 도구없이 행하는 생태적 풍경화 혹은 정물화라고 볼 수 있다. 잘 그린다 못 그린다를 떠나서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고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시간이다. ② 설치 워크숍의 발전 단계로서 직관, 신체, 역동성이 넘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거리의 가구 설치 워크숍 ① 영혼을 울리는 이정표 제작	상징 표지판 혹은 이정표 만들기로 마음을 여는 방향 지시, 철학과 교훈이 있는 공공적 내용, 과격적 상상력이 있는 생각하는 작업이다.
오리엔티어링 워크숍 ① 밀머리 탐험 지도	소집단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밀머리 인근을 탐험하고, 각 지점에서의 과업을 수행한 후, 역사, 지리, 박물관적 지형도를 만든다.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 ① 전자현미경과 천체망원경의 세계	전자현미경 속의 세계를 A4용지에 세밀하게 표현해본 후, 천체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의 별을 관찰한다. 과학과 설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주와 세계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슬라이드 혹은 비디오 프로그램을 보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관찰과 표현으로 연결한다.
T셔츠 만들기 ① 밀머리 T셔츠 공방	기상천외한 T셔츠, 강렬한 자기표현이 있는 T셔츠를 만들어 본다. (여러 별의 현옷 필요)

27) <http://cafe.daum.net/milart>-밀머리 미술학교 카페

<도판 1~2> ‘따뜻한 왼손’ 활동 모습



(4)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신림동 난곡지역은 1960-70년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곳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근로 청소년들의 배움터로 남부야학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림동 난곡지역도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게 되었지만, 배움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간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남부야학이 남부교육센터로 개칭하고 그 안에 있었던 청소년교실을 서울시대안교육센터가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대안 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2001년 9월 명칭을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로 하고, 학교를 탈락한 아이들의 명단을 들고 아이들을 찾아나서 10명의 아이들을 가르친 것으로 꿈 학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60여명의 아이들이 꿈 학교를 거쳐 갔고, 다양한 아이들이 이합집산을 하며 꿈 학교는 서울의 남서부

지역의 도시형 대안학교로 자리매김했다. 2004년, 2005년 교보생명 지원으로 진행된 봉사학습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연계가 시작되었으며, 장터나 후원 사업을 통해 난곡지역 지역학교로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1) 교육목표 및 운영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는 1973년부터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온 남부교육센터가 인근 지역의 탈학교 청소년과 함께 지역의 많은 교육 자원들을 활용하여 그 성과를 다시 지역으로 되돌리는 지역학교에 목표를 두고 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뿌리를 내린 현장의 장점을 살려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대안교육센터의 재정 지원으로 두세 명의 길잡이 교사가 ‘터지기’로 아이들과 일상을 함께 하고, 대학생 자원 활동가들이 결합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기본 교과 외에도 다양한 학습들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진행된다. 특히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는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지역인 신림동 난곡의 낡은 집을 손봐주는 활동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에서는 검정고시를 위한 준비 외에도 탈학교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나눔터 시간과 춤추고 노래하고 영화도 보는 문화교실,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는 생활수업, 청소년 교실의 이모저모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자치회의와 같은 수업과 나눔을 통해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고 청소년 스스로의 자원을 발견하고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8)

2001년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운영보고(‘서울시대안교육센터 2001사업보고

28) 설연경,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미술교육프로그램 분석-도시형 비인가 전일제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11

서', 2002)에는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미래의 성인이 될 청소년들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와 인성교육을 제공하며, 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교육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의 기조는 현재도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의 철학과 교육목표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꿈 학교의 학제는 2년 4학기제로 되어 있고, 학습하는 교과는 학습기반, 선택, 특성화 교과 그리고 특별활동, 학습발표회 등으로 구분된다.

2) 미술수업의 내용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는 미술교과가 전체교육과정 중 10~20%이며, 시행되었던 미술프로그램에는 DIY목공 프로젝트와 점점프로젝트가 있다. 그 중 ‘점점 프로젝트’는 미술치료를 전공한 자원교사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고,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자원교사와 학생들을 돌보아 주는 길잡이 교사가 참관한다. 이 수업은 학생과 이전부터 알고 지낸 길잡이 교사와의 신뢰로 시작하고 길잡이 교사는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강사를 믿고 그에 따른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두 가지로 설정되어 있는데 첫째,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미술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둘째, ‘공감을 통한 집단관계 형성을 꾀할 수 있다.’ 이다.

15회 수업 중 10회는 개인작업, 5회는 공동작업이다. 개인 작업 중 ‘가면 만들기’는 인물화의 일종으로 언어를 대용하는 그림을 통해 인간의 내면 요구, 개념, 생활경험의 표현과 환경에 대한 지각을 이야기하며, 또한 자아상의 투사인 동시에 무의식 세계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표현해주는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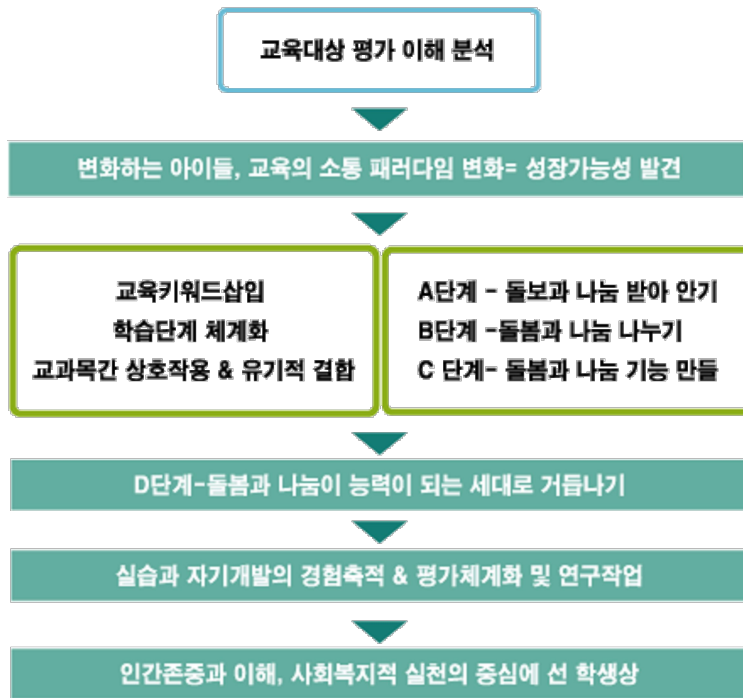
‘인터넷 작가와의 만남’, ‘사진이미지 만들기’, ‘영화 속 주인공’ 등의 내용을 통해서 20세기 현대미술의 흐름을 반영하여 영상매체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8>은 ‘점점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수업내용을 작성한 계획표이다.

<표-8> ‘점점 프로젝트’ 계획표²⁹⁾

회기	주제	제목	세부내용 및 방법
오리엔테이션			
1	나를 소개하기	칭찬의 가면	1. 석고붕대를 활용하여 얼굴 가면 만들기 (NIE) 2. 인맥 이미지 맵 그리기
2	나를 표현하기	인터넷 작가와의 만남	1. 인터넷 이미지 작가(우유가 소녀, 이다, 착한 소년)검색하고 이야기 나누기-책 살펴보기 2. 그림일기 그리기
3		로모월을 꿈꾸며	1.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사진으로 이미지 만들기 2. 로모월 꾸미기(사진의 이미지로 패턴 벽 만들기)
4	너와 생각 나누기	영화 속 주인공	1. 단편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고 느낌 그리기 (주제: 집단과 나) 2. 뮤직비디오 클립 화면 재구성
5		네버 엔딩 스토리	1. 동화의 줄거리를 다변형 하여 재구성하기
6		현장 체험학습	1. 홍대 앞 프리마켓에서의 아이디어 수집 2. 북 페어 전시 관람
7	함께 하는 우리	사색사담	1. 같은 주제 ‘함께 사는 세상’을 가지고 집단 원끼리 이미지 텔링하여 책 만들기 (돌려 그리기)
8		아트북 만들기 -내 책 만들기	주제, 캐릭터 설정하여 이야기 책 만들기
출판 전시 및 나눔 파티			

29) 설연경, 전계서, p.27

<도판-3>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프로그램³⁰⁾



30) <http://www.dreamwe.org/>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사이트

3. 국외사례

(1)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Waldorf school)

1) 발도르프의 설립배경

1차대전후 1918년 가을, 연합국에 항복한 독일은 식량 부족과 기근, 데모, 파업, 폭동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긴급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일마저 포기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슈타이너의 이념이 지지를 얻게 되었고, 1919년 5월 삼중의 사회질서를 위한 단체가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 설립되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여러 곳에 연사로 초청되어 저명한 인물들에게 개인적 자문을 주기도 했다.

그는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재앙은 교육의 탓이라고 확신하고 1919년 5월 25일 그의 동료들과 함께 슈투트가르트에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하여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 9월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가 학교조직과 관리를 맡게 되었다. 개교 연설에서 슈타이너는 만일 인간성이 미래사회의 옳은 방식이라면 인간성이야말로 어린이를 교육하는 올바른 사회적 방법이라 하였고, 이 학교가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데 작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처음 이 학교는 8학급, 256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사들로 시작하였다. 1921년에는 스위스의 도르나흐와 쾰른, 1922년에는 함부르크와 에센, 1923년에 네덜란드 덴하, 1925년에 영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헝가리, 1928년에는 미국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나치의 지배로 폐쇄되거나 중단되었고 1960~1970년에 이르러서야 건립운동이 다시 시작되고 급증하였다. 현재는 독일에 150

여개, 세계적으로는 700여개가 있고, 1400여개의 발도르프 유치원과 기타시설이 있으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슈타이너의 교육철학

발도르프 학교교육은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슈타이너는 교육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를 두고, 인간본성의 표면 밑에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인지학은 ‘Anthroposopy’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어의 사람을 뜻하는 ‘Anthropos’와 지혜를 뜻하는 ‘Sopia’가 합쳐진 말로 인간에 대한 지혜를 의미한다. 하지만 단순히 ‘인간에 대한 지혜’라기 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인간성을 의식하도록 ‘인간 영혼에게 지혜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지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 즉 인간의 정신적 본질에 대한 학문으로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31)

첫째, 눈에 보이는 현실세계와 다른 독자적인 정신세계가 존재한다.

둘째, 인간은 물리적 신체와 정신,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인간은 7년을 단위로 특징적인 발달단계를 거친다.

넷째, 교육은 성장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슈타이너는 이러한 인지학을 기반으로 육체, 영혼, 정신이 조화된 전인적 인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발달은 인간의 발달을 7년을 주기로 3단계로 나누고 인간의 발달에 따라 4구성체의 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발달 단계에 따라 각각의 교육과제와 내용, 방법들을 제시하여 교육과정이 아동발달에 맞게 결정되어야 하며 교육은 인간의 본성

31) 신혜민,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발전가능성 탐색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26

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이다. 슈타이너의 3단계의 교육론은 다음과 같다.

① 제 1·7년기는 물리적 신체의 탄생기로 태어나서 7살까지를 말한다. 이 기간은 신체만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어린이는 직접적인 감각 체험을 통해 모방함으로써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어린이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고 어린이의 감각 기간을 자극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신체와 오감을 통해 환경에 동화시키는 교육을 하는 의도는 어린이 내부에 있는 ‘의지’에 기초를 두는 것이며 제 2·7년기의 ‘감정’, 제 3·7년기의 ‘사고’의 교육을 좀더 잘 실행하기 위한 과제이다.

② 제 2·7년기는 생명체의 탄생기로 7살에서 14살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 들어선 것을 알리는 것은 ‘이갈이’라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막에 싸여서 내부에서 생명현상을 주관해온 생명체가 막을 벗어나 외부세계로 나온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모방했던 어린이가 이번에는 주어진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학교라는 세계가 시작된다. 이 때는 감정체가 막 속에 있으며 감정체의 출생을 대비해서 충분한 감정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이 시기에 감정체를 보호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사고나 추상개념을 강요하게 되면 감정체의 자연스런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 억지로 조산하게 되어 그 아이는 나중에 감정 면에서 미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③ 제 3·7년기는 감정체의 탄생기로 14살에서 21살까지를 말한다. 이때는 감정체가 보호막으로부터 나옴으로써 사고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개인의 관심과 취미를 발달시키는 능력과 인식문제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얻으려는 노력 등 중요한 영혼적 기초에 눈뜨게 된다. 이때 학생들은 권위의 상징이었던 어른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교사는 인간으로서 학생들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 때부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전문교과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발도르프 학교의 상급학년에서의 수업은 학문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 시기는 추상적이고 자아체가 아직 보호막

속에 있기 때문에 자아의 성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³²⁾

이러한 세 가지 발달과정에 따른 교육을 통해 슈타이너는 ‘자유로운 인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1단계의 의지, 2단계의 감정, 3단계에서의 사고를 발달 시킴으로서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지닌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슈타이너의 교육을 통해 인간 본연의 교육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교육과정과 내용

통합적 교육과정인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은 슈타이너의 인지적 발달론에 근거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인적인 교육의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적교과와 함께 예술, 종교, 노작 교과가 중요시되며 인간의 생활에 적합한 다양한 수업 활동을 전개한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한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어울리며 유급이 없고, 대학 진학 반, 직업반의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는 공간으로 보통 한 학년 당 1개의 학급으로 편성되며 학급당 인원도 30~40명 선이다. 기본교과는 1학년에서 8학년까지 담임교사에 의해 가르쳐지며 전문교과는 9학년에서 12, 13학년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학습 자료와 시간표는 학생들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전에는 주로 서고와 이해력을 익히는 기본교과를 배치하며 오후에는 예술적인 활동과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는 예체능 교과를 주로 배치한다.

① 8년 담임제

독일의 일반학교에서 기초학교는 4년 동안 같은 담임을 맡지만 발도르프에서는 한 명의 같은 교사가 계속해서 8년을 가르친다. 이는 슈타이너가 아이

32) 엄세라, 「대안학교 교육 체제에 관한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 34

의 8년을 전체 성장 단위로 볼 것을 강조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사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고 교육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전 학년의 담임을 통해 전해 듣는 정보만으로 아이들을 쉽게 평가하지 않고, 보다 민감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교사의 인격을 통한 배움이 가능하다.

8년 동안 같은 선생님과 배우는 주기 집중식 수업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이 소개된다. 여기서 교사는 가르치는 지식이 살아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인적으로 체화된 지식이 되도록 수업한다. 오랜 기간 동안 수업하기 때문에 교사는 부모가 자식을 알듯이 알 수 있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이와 같은 교사의 열정으로 인하여 교사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이러한 권위는 틀에 박힌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기계적인 수업방식의 교사들의 권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이 시기가 발달 단계상으로도 교사에 대한 권위를 충분히 경험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② 주기 집중 수업(Epochen Unterricht) : 에포크 수업

주기 집중수업은 3~6주를 하나의 주기로 하고 매일 두 시간 가량의 주기 동안 내내 같은 교과를 가르치는 운영방식이다. 주로 오전8시부터 10까지는 주기수업으로 첫 30분은 시 암송이나 음악에 따라 스피치(speech)를 하게 된다. 하나의 주기 동안 같은 교과만 가르치고, 그리고 다음번에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집중과 교체라는 에포크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슈타이너는 이러한 수업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쉬어야 수업내용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교사입장에서는 정해진 주기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해 집중할 수 있고, 학생입장에서는 다른 과목의 방해받지 않고 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오이리트미(Eurythmy) : 표현 운동

오이리트미 수업은 발도르프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중 가장 독특한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오이리트미는 슈타이너가 고안한 정신적 운동행위로서 그리스어의 EU(좋은, 조화로운)와 Rhythmu(리듬)의 합쳐진 단어로 ‘좋고 조화로운 리듬’이라는 뜻을 지닌 독일어이다.

언어와 음, 정신적 법칙성 등을 몸짓과 동작으로 표현하는 움직임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오이리트미는 심리적이고 영혼적이며 정신적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혼화 된 체조, 신성화된 무용, 정신무용이라고도 부른다. 시나 음악, 동화를 오이리트미로 표현하며 이 자체는 극예술이 되기도 하고 교육적 수단, 치료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종류에는 음악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톤 오이리트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오이리트미, 말의 톤에 따라 움직이는 언어 오이리트미가 있다.

④ 노작교육

발도르프 학교는 노작교육을 중시한다. 사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인간은 육체와 영혼, 정신을 새롭게 갱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물건을 만드는 수공예 활동이 강조되고, 그림과 찰흙으로 빚는 예술 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과 머리와 가슴, 손과 발이 함께하는 인간을 교육하려 한다. 처음 1,2학년에서는 뜨개질 3학년에서는 바느질과 목공을 남녀모두에게 가르치고 4,5학년이 지나면서 농사, 속기, 측량술, 응급처치, 공업기술 등을 배워나가게 된다.

⑤ 조기 외국어 교육

외국어 수업은 조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릴 때 다양한 언어를 경험함으로써 영혼의 힘과 다채로움이 풍부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1

학년 과정에서부터 영어(필수),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2개의 외국어를 배우는데 이 수업은 주당 2~3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다. 3학년까지는 주로 놀이와 노래, 그림, 연극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게 하며 4학년부터 말하기, 문법, 문장쓰기, 번역 등을 가르친다.

4) 미술수업의 실제

슈타이너의 “교육은 예술적이어야 한다.”라는 교육론에서 출발한 발도르프 학교는 예술교육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도르프의 미술교육은 통합적인 전인교육으로서 타 교과와의 관련 속에서 그 가치를 찾는다고 할 수 있다. 수업은 예술적인 교육의 방향에 따라서 구조화되고 회화, 소묘, 조소, 노래와 악기, 연주 및 연극, 시, 오이리트미 등 다양한 예술적인 수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미술교육의 형태는 조소, 금속공예, 편물, 수공예, 공작, 수채화, 포르멘 선묘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예술론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인 지도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르멘 선묘와 수채화이다.³³⁾

① 포르멘(Formen zeichen) : 형태 소묘

표현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도르프는 이를 위해 포르멘이라는 독특한 수업을 한다. 포르멘 선묘란 영어의 Form Drawing의 의미로 우리말로 ‘형태 그리기’로 번역될 수 있는데 움직임으로부터 선이나 형태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체험이라 할 수 있다.

이 수업에서는 자연에서 찾아낸 직선, 등근 선, 나선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스케치북에 크레용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형태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는

33) 박지연, 전계서, p.35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강조하는 각종 수공작업에 필요한 솜씨를 키우는 선수과정이며 특이한 점은 ‘쓰기’가 ‘읽기’보다 선행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잘 움직일 줄 알아야 유연한 이념, 사고를 가지고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는 효과와 장래에 문법이나 기하학, 생물학 따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공부를 할 때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영적인 눈과 귀를 키우지 않으면 초감각적인 세계를 느끼는 것이 힘들지만 포르맨을 통하여 초감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인 형태로 경험 시킬 수 있게 된다. 포르맨은 1학년부터 5학년생 주로 6세~12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년 2~3회, 2·3주간에 걸쳐 집중수업으로 행해지거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연중 내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② 수채화 수업 : 이미지의 표현

발도르프는 회화교육에 있어서도 색을 사용한 형태의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색채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혼합이 어려운 크레파스나 불투명 소재의 재료보다 색의 혼합이 쉬운 수채화 물감을 많이 쓴다.

수채화 수업에서는 물에 적신 화용지에 그리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이것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색을 통해 이끌어내고 색채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창조적 조형 활동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 가지 색을 쓰게 하고, 점차 사용색의 범위를 넓혀가게 하는데 이는 수채화의 사용을 통해 가장 풍부하게 색에 관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채화 수업은 색의 경험, 색의 조화에 대한 경험 등을 거쳐서 형태그리기의 단계로 점차 나아간다.

발도르프의 색채수업의 핵심은 색채원근법을 밝히는데 있다. 이것은 기존의 원근과는 조금 다르게 2차원 적인 평면에 집중하여 공간적인 3차원 공간과는 다른 영적인 차원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수채화를 통한 조형 활동은 고학년으로 가면서 더욱 더 깊은 자신의 마음속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여러 가지 작품제작을 통해 학생들은 점차 창의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색채놀이부터 이미지에 의한 자유로운 표현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활발하게 하고 기쁨의 감정을 생성시켜 내면의 세계를 깨닫아 창조적인 원동력을 길러나가게 된다.

<도판 4~5> 발도르프 학교교육의 모습

	
<p>3학년 주기 집중시간에 그린 형태그리기</p>	<p>11학년 아이들의 물리수업 노트</p>

(2) 미국의 공립 대안학교 'City As school'

1) 설립배경

뉴욕 시 소재의 'City As School'은 보통 줄여서 CAS라고 부르며 시내에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공립 대안학교'이다. CAS는

1965년부터 1970년대 무렵 미국 공교육의 붕괴로 인해 공립학교에서 빠져나와 움직이기 시작한 ‘자유학교 운동’이 1970년대 접어들어 거꾸로 공립학교에 커다란 영향을 주면서 만들어진 학교이다. CAS는 1973년 뉴욕 시 교육 위원회의 실험학교로 만들어졌고, 문을 열기 전 1년 동안 준비를 위해 설치준비위원회가 교원조합원안에 만들어졌다. 교장으로 내정된 플렛 카우리와 지원한 10여명의 학생, 그리고 교사 4명이 위원으로 뽑혔고, 이 가운데 고교생 위원들은 1년 동안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고, 이것들이 학교 수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CAS는 1970년대에 생겨나기 시작한 ‘벽이 없는 학교’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 특성

첫째, CAS는 대안학교와 공교육체제간의 성공적인 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학교는 공립 대안학교로서 공교육이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대안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시 말해 기존 대안학교들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CAS는 공교육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생겨난 학교이다.

둘째, CAS는 뉴욕이라는 도시전체를 학교로 이용하고 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뉴욕시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시설, 학교는 물론 기업과 개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배운다. 때로는 이론을 배우기도 하고,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활동들이 바로 학교 수업으로 인정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없애고 지역사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육자원’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이 학교의 특징이다. 이 학교는 시에 220개(개인 포함)의 교육자원을 가지고 있고, 학습활동의 97%가 도시 전체를 교실 삼아 행해진다.

셋째, CAS는 공립학교라서 뉴욕시내에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동안 수학과 과학을 수료한 학생을 우선해서 입학시키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고교 3학년이나 4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이들을 위해 다양한 선택 강좌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34)

3) 교육과정

다른 학교와 비교해볼 때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CAS(수업과목에 해당됨)의 학습코스는 모두 278개나 된다. 영어, 사회, 수학 수업 가운데 11개 코스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학교 밖의 뉴욕 시내에 흩어져 있는 교육자원들에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제공된 학습자원들은 하원의원, 보석가게, 실내악단, NBC 텔레비전, 장콕토 극단, 도자기 공장, 가정재판소, 맹인협회, 형무소개혁사업단, 방송국, 시의회 등이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면 교실 책상에 붙어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 훨씬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몸에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CAS의 학생들의 배움터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고,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공부+실무를 한꺼번에 익히는 것이 CAS의 교육목표 중 하나이다. 학교는 뉴욕 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조정하는 ‘본부’이자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CAS에 소개된 열일곱 영역의 각 코스는 다음과 같다.

① CAS 대학 프로그램 : 대학 강좌 수강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협력하고 있는 열 개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강이 끝나면 대학에서도 CAS에서도 단위로 인정받는다.

34) 김태정, 전계서, p.54

② 전문직 고교생 인턴 프로그램(Executive High School Internship Program)
: 진로를 확실히 정한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예를 들면 병원, 법률사무소, 텔레비전 방송국 같은 곳을 다니면서 전문가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시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뉴욕 시 전체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CAS 강좌의 전문화와 뉴욕의 다른 고교생들에 계도 기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③ The Door :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워크숍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CAS 단위로도 인정된다. 지금까지 다루어졌던 주제는 치료를 위한 수학, 도예, 보석가공, 유도, 검도, 춤, 연극, 미술 등이 있다.

④ 마운트사이나이외과대학 건강교육 :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에서 이론적 연구와 실습을 한 학기 동안 한다.

④ 이 밖에도 자유연구, 청년심리학, 그룹 다이내믹스, CAS변론부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분류에 있는 '기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 야간학교 :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부기 등을 배우는데 6 월에 졸업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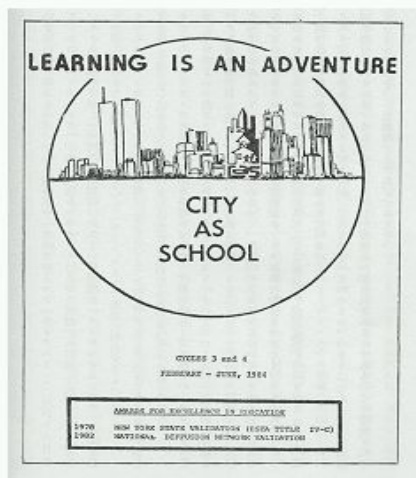
㉡ 학교 간 협력학습(Shared Instruction) : 뉴욕 시 교육위원회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시내에 있는 스물일곱 개 학교에 개설된 비지니스, 자동차 수리, 건강 직을 비롯한 직업코스에 주 8시간 출석하면 된다.

㉢ 방과 후 직업기능코스 : 이것도 교육위원회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상공업, 비지니스, 건강, 미술 영역에 250코스가 준비되어 있고, 주 4 시간 출석한다.³⁵⁾ 이상이 이른바 CAS 커리큘럼의 개요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세심한 프로그램과 기발한 발상들이 놀랍다. 시교위의 실험학교로 시작한 CAS 프로그램이지만 CAS 밖에 있는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부분이 더욱 돋보인다.

35) 이토히로시, 김경옥 역, 전개서 p.83

CAS에서는 특히 미술수업이 실용미술 13시간 미술 2시간으로 많은 시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업 내용으로는 Art History, Painting, Silk Screen 등이 있다. 유명한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도 이 학교에서 낙서 화가 알 디아즈(Al Diaz)를 만나 낙서그룹을 조직하고 자신의 회화세계를 구축하였다.

<도판-6> CAS의 카타로그와 학습코스³⁶⁾



카타로그 표지

각 코스는	
분류영역	코스 수
특별프로그램	4
영어	9
사회과	1
과학	2
수학	4
실용미술	13
미술	2
건강교육(경력생기)	1
체육	4
화제간코스	208
음악	3
경제학	4
건강교육(개인의 건강)	2
아메리카연구	9
비즈니스교육	2
기타	3
계	278

36) 이토 히로시, 김경옥 역, 상계서, p.75

(3) 영국의 자유학교 섬머힐 (Summer Hill School)

1) 설립배경

영국의 대안학교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모색되어 오던 교육개혁 운동의 영향으로 그 당시 영국의 엄격한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섬머힐은 교육 실천가인 니일(A.S.Neill)에 의해 1921년에 설립된 자유학교이며, 최초로 자유학교를 표방하여 오늘날 학교교육 이념에 큰 영향을 미친 학교이다.

섬머힐은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도 매우 크다. 특히 생활학교형 대안학교인 영산 성지고등학교의 경우 인성교육의 모델을 섬머힐에 두고 우리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설립자인 니일이 사망한 이후로 섬머힐은 그의 부인에 이어서 현재는 딸이 교장으로 활동으로 하고 있고, 그 근본 취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교육 철학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Erich Fromm)은 니일의 근본사상과 교육의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 니일은 ‘어린이는 선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삶에 대한 흥미를 느낄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둘째, 교육의 목적은 즐겁게 일하면 행복해지는 데 있다. 행복은 삶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전인격을 가지고 삶에 반응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에 있어서는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다 같이 발달시켜야 한다. 현대인의 경험은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아는 직접적인 파악이라기보다는 주로 사고를 통한 경험이다.

넷째, 교육은 어린이의 심리적 요구와 능력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어린이는 애타주의자(愛他主義者)가 아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이 하는 성숙한 의미의 사랑을 아직 할 줄 모른다. 자기 이외의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애타주의는 아동기를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발달하기 시작한다.

다섯째, 독단적으로 가해지는 훈육과 벌은 공포심을 자아내며, 공포심은 적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학과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벌을 주는 것과 같은 불안감을 낳게 된다.

여섯째, 자유는 결코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니일이 분명하게 주장하는 이 원칙은 양쪽이 모두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어린이에게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어린이도 교사에게 강제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일곱째, 이 원리는 교사 측의 진정한 원칙성이 요청된다. 니일은 40년 동안 섬머힐에 있으면서 어린이를 속인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한다.

여덟째, 인간의 건전한 발달단계로서 어린이는 자기 부모와의 최초의 결합에서 차츰 떨어져 나오고 마침내 진어한 독립된 인간이 된다.

아홉째, 죄책감은 아이가 독립적으로 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 죄책감은 반항, 후회, 복종 그리고 다시 반항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 한다.

열 번째, 섬머힐 학교에서는 일체의 종교교육이 없다.

3) 교육목표 및 예술교육

섬머힐 학교의 장점은 어린이들의 삶이 겁이나 증오에 물들지 않고 건전하

고 자유로운 어린이들이라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니일은 모든 교육과정과 훈육, 종교적인 교육을 없애는 대신에 매일의 일상생활을 교육내용으로 만들었다. 수업은 주로 반 단위로 진행되고, 반은 연령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서 반을 선택해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학급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 있으나 수업 참여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과목을 선정해서 듣더라도 2주간 계속해서 수업을 듣지 않으면 다시는 수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섬머힐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은 일상생활을 교육 내용으로 하면서 오전에는 지적교육, 오후에는 과외 활동을 하고 있다. 지적교육보다는 정서교육을 강조하여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연극, 댄서, 음악과목을 통해 어떤 제목을 주고 자유로이 연기를 시키는 자유연기를 통해 모방보다는 창조를 배우게 했고 그것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섬머힐의 교육방법이 자유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스스로 어떻게 할 생각에 이르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의해서나 어떤 일도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이다.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생활 속에서 민주절차를 배울 수 있는 자치회 운영과 사랑 그리고 정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내용 및 예술교육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모든 수업이 선택적이라는 점과 일주일에 한번 씩 열리는 자치 회의이다. 전교회의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모두 한 표씩의 투표권을 가지고, 학교규칙을 만들고 개정한다. 즉, 전교투표에 의해 학교의 모든 규칙이 결정된다. 또한 학생들은 개별지도를 받고 있고, 남녀 공학이다.

학생들의 놀이 (노는 일)를 중요하게 여기며, 연극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얻게 한다. 또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느끼는 창조적 즐거움을, 춤을 추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통해서 알도록 춤과 음악을 생활화하고 있다.

섬머힐은 그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이며 따라서 가르치는 것은 공동체의 일부분에 속하는 일이며,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조화와 자유를 누리며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³⁷⁾

(4) 일본의 자유학교 도쿄슈레(東京, Shure)

1) 설립 배경과 발전

일본에서는 1975년부터 학생들의 ‘등교거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01년 문부과학성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1년에 30일 이상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의 수는 초·중등 학생만 13만명 208명이상이라고 한다.

일본의 자유학교의 대표적인 학교로 ‘도쿄슈레’가 있다. ‘정신을 자유롭게 쓰는 곳’이란 뜻의 그리스 말을 딴 도쿄슈레는 정규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지난 1985년 부모들이 직접 만든 대안교육 공간이다. 도쿄슈레는 획기적인 교육이념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학교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이지메와 체벌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250여명의 아이들이 20여명의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배우고 있다.

도쿄슈레가 만들어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오구치 게이코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게 되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끼리 만나 ‘등교 거부를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공립학교 교사였던 오구치 게이코는 22년 동안 몸담았던 학교를 그만두고, 경쟁과 억압적인 교칙이 없는 슈레의

37) A.S.니일, 김은산 역, 『니일의 인간교육사상』, 서울:배영사, 1988, pp.29~40

대표적인 활동가가 되었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학교밖에 없다. 자기 생각과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다양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이 모여서 만든 학교가 도쿄슈레인 것이다.

도쿄슈레는 ‘오지, 오오타, 신주쿠’ 세 곳에 있고,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의 연령은 6살부터 21살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 회원은 200여명 정도 있다.

도쿄슈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인 ‘홈 스쿨링’, 즉 가정에서의 교육운동도 시작하였는데 1994년 9월 도쿄슈레가 개최한 ‘홈 스쿨링에 대해 생각하는 심포지엄’에는 하루에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미국과 영국의 홈 스쿨링이 소개되고, 1994년 11월부터 ‘홈슈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홈슈레는 재택교육 가정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네트워크로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매달 재택교육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일본 문부성은 지난 92년부터 학생들이 도쿄슈레에서 배우는 것을 ‘홈 스쿨링’으로 간주하고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도쿄슈레는 지난해 4월 도쿄슈레 출신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 과정인 ‘슈레대학’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요즘에는 정규학교인 ‘도쿄슈레 가쓰시카 중학교’의 개교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2) 특징과 운영방식

먼저 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도쿄슈레는 6살부터 21살까지 학생층이 다양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도쿄슈레는 학교규칙이 없다. 그 대신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활동가와 아이들은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큰 행사나 수업 내용, 활동 계획 같은 것도 검토한다. 회의에서 사회, 기록도 원하는 아이가 맡는다.

셋째, 도쿄슈레에서는 행사를 할 때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에서 실행까지 의논한다.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의 모임으로 음악, 스포츠, 공예 동아리 등이 있다.

넷째, 학교에서는 빈 틈 없는 시간표로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지만, 도쿄슈레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³⁸⁾

학교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수강료는 매일 나오는 학생은 4만엔, 가끔 나오는 경우에는 전체 비용에서 1/3만 부담한다. 현재 세 곳의 슈레에 20명의 활동가가 있으며 회원모두가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주로 아이들과 함께 놀기, 수다 떨기, 고민상담, 배우고 싶은 것 함께 배우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를 넓히는 활동까지 담당하고 있다. 남과 여,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도쿄슈레에서 자라 커서 활동가로 활약하는 사람도 있다.

3) 교육과정

도쿄슈레의 수업시간에는 학교와 같이 국어, 과학, 수학, 영어, 사회 같은 교과과목 시간이 있지만 수업방식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사회교과에서 태국 수업은 태국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 정치, 역사를 이야기 한다. 그밖에도 춤, 컴퓨터, 그림 같은 다양한 강좌가 있어 여러 전문 활동가가 담당하고 있다. ‘시리즈 인간’이라는 강좌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학년에 상관없이 모두 들을 수 있으며 만화의 원작자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인기가 많아 16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수업이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손으로 만들기, 견학, 스포츠, 요리 같은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계획해서 활동가와 의논하면서 함께 한다.

38) 김태정, 전계서, p.59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의 모임으로 음악, 스포츠, 공예 동아리가 있고 축구 동아리가 가장 활발하다. 프로그램 중에 빈 시간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지내는 시간이다.

아이들이 자주성과 사회성을 키우며,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아이들이 지은 통나무집에서 합동합숙, 스키 합숙, 연극이나 합창 발표회를 겸한 크리스마스 모임, 등산 열기구 제작, 미국 프리스쿨과의 교류하는 행사들이 있다. 또한 유라시아 횡단여행도 하고, 중국에서 네델란드까지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을 만나며 한 달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IV.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황 및 새로운 동향

1. 미술교육의 의의 및 목적

미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며 미술의 각 요소들은 인간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한다. 이러한 미술을 교육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미술교육은 인간의 내면을 시각적, 조형적, 공간적으로 표현해 내고,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로 신장시키는 행위이다. 미적 생활의 가치를 인식하고, 삶을 보다 넓고 풍부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곧 미술교육이 인간 내면을 통한 자아의 개발 및 자아의 신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허버트 리드(H. Read)는 인간 구원의 수단으로 예술을 통해 교육하고자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자발적인 창조능력을 억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을 예술교육으로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³⁹⁾ 인간 개인의 미적 안목 육성, 조형능력의 개발, 감성의 함양을 통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 인간의 모든 학습 내용과 접목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신장시켜 감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넉넉한 생활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미술교육의 궁극적인 의의인 것이다.

대부분의 교과에서는 분석적, 언어적, 합리적, 논리적인 것을 교육해 왔고 그것을 상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것에 관해서는 인간의 좌뇌가 관련하고 있고 미술활동은 주로 우뇌와 관련된다. 인간의 두뇌는 어릴수록 뇌의 성장속도가 빠르다. 때문에 두뇌 발달을 위한 노력은 조기에 시작할수록 바람직하며 조화로운 인간성 개발을 위해서라도 미술교육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39) 이종화, 「예술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의 개선방안」, 한국 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6

현재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미술교육의 목적은 이른바 ‘정서’ 교육이라는 것이다. 아름다운 미술작품과 미적 대상을 학생이 자주 접하게 하여 그들의 조잡한 정서를 순화시켜 간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창의성’ 육성을 강조하는 견해인데, 창조적인 미술경험을 많이 시켜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술을 가르침으로써 만들고 그리는 ‘조형기능’을 길러준다는 전통적인 견해이다. 이 밖에도 미술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미술과 교육이 책임지는 중요한 목적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적인 견해와 함께 좀 더 본질적인 관점에서 미술교육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대체로 미술교육의 중심적인 목적은 학생의 창의성, 미적 정서, 조형 기능, 미술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데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술활동은 크게 보면 시각적인 상징을 작품화하여 나타내는 ‘표현활동’이 있고 그것을 내면에 받아들여 즐기는 ‘감상활동’이 있다. 이 표현과 감상활동은 모든 예술 활동이 가지는 속성이기도 하다. 교육학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미술교육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미적 경험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술과 같은 조형예술에서 미적 경험이 지니는 특성이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는 미술 형식면에서 ‘조형성’ 또 그 형식 속에 담기는 내용 면에서 ‘창의성’, 그리고 그러한 내용과 형식을 지각하고 감상하는 ‘정서성’ 등을 그리고 미술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또 문화에서 전달된다는 면에서 ‘지식성’을 꼽을 수 있다.⁴⁰⁾

2.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역사

우리나라 미술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몇 단계로 그 변천 과정을 구분해 볼 수 있다.⁴¹⁾

40) 박지연, 전계서, pp.69-70

41) 김정 외12인, 『미술교육학원론』, 서울:예경, 1998, p.67

첫째는 개화 이후 1945년까지의 ‘이식기(移植期)’로서, 서양의 미술교육이 일본을 거쳐 당시 그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 적용된 시기이다.

다음은 그로부터 해방과 6.25전쟁의 혼란을 겪은 다음 1960년대 3공화국 군사정권이 새롭게 미술교육과정을 고시하고(1955) 실시하던 1965년까지 약 25년간의 기간이다. 이는 학교미술 교육과정이 비로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착근기(着根期)’이다.

셋째는 다시 그로부터 20년 뒤인 1985년까지로서, 네 번째 교육과정이 고시·실시되었는데 이는 성장기(成長期)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 2005년에 이르기까지 약 20년간으로써, 이는 마땅히 질적으로 발전해야 할 ‘심화기(深化期)’로써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심화기에는 1987년과 1992년에 5차와 6차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는데 5차 교육과정은 1981년의 4차 부분을 부분 수정하여 그대로 쓰고 있고, 1992년 6차 교육과정 역시 그 앞의 것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다. 다만 ‘생활과 미술’이라는 영역을 추가하여, 미술을 생활의 실제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표현하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자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은 미술과 교육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인적 성장의 바탕위에 개성을 지향하는 인간, 전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민주적 공동체에 헌신하는 인간, 기초능력을 토대로 개방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교양과 덕성을 갖추고, 직업적 과업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 미술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창조, 발전시켜 나가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한 미술을 시대의 문화로 기록하고, 반영함으로써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 문화의 발전에 공헌한다. 미술과 교육은 학생들에게 주변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미적 감수성을 길러 정서를 함양하며, 상상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며, 미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

을 육성한다.

제 7차 교육과정의 미술과 목표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으로 설정 되었고, 그 하위 목표는 아래와 같다.⁴²⁾

첫째,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셋째,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문화 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개정의 중점은 총론에서 추구하는 개정의 기본정신 및 중점 사항을 반영하고, 학습자의 관심, 흥미, 필요, 요구를 반영하며, 미술의 생활화를 강조한다. 또한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통 미술을 강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과 시각문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통합수업의 요점이 없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42) 교육부,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Ⅳ』, 1999, p.160

3. 제 7차 미술교육과정의 개정

최근 고시된 새 교육과정은 2009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⁴³⁾할 예정이며, 새 교육과정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이 보다 즐겁게 공부할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새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플렛 등 각종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교육과정 해설서와 각종 연수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사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함으로써 학교에서 새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2년은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과서가 모두 완료된 시점으로 사실상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에 걸쳐 전면적으로 모두 실시되는 해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이 제정, 고시된 지 벌써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적용과 실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학교교육과정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분석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는 교육과정 개선방안 및 개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 나오게 되었다.

양윤정의 연구에서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⁴⁴⁾

가. 학교 미술교육에서의 미적 인식 능력의 체계적인 육성

43) 새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적용 일정

- 2009년 : 초 1, 2학년
- 2010년 : 초 3, 4학년, 중 1학년
- 2011년 : 초 5, 6학년, 중 2학년, 고 1학년
- 2012년 : 중 3학년, 고 2학년
- 2013년 : 고 3학년

44) 김정희 외 6인,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학지사, 2003, pp.67-68

(ㄱ) 기초적인 조형 언어교육의 충실

(ㄴ) 실생활과 관련된 미술학습의 경험제공

(ㄷ) 건전한 미적 판단과 미의식의 형성

나. 학교 미술교육에서의 시각문화에 대한 학습경험 제공

다.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구가 교육과정의 명료화

라. 미술교과 내외의 통합적 활동의 수용

이 가운데서도 시대 문화적 상황들과 연계한 미술교과의 변화된 성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나’향)은 21세기 초부터 시작된 미술교과에서 시각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연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타 교과 및 다른 예술영역과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라’향)은 미술교과 내외의 통합적 활동이라는 것으로 압축되어 제시되었다. 이는 삶속에서 의미 있는 연계를 지니며,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미술학습을 위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체계적인 미적 인식 능력의 육성(‘가’향)과 교육과정의 명료화(‘다’향)은 구체적인 제시가 미흡했던 현행 교육과정의 수정, 보완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단계적, 체계적으로 길러야 할 능력 및 제시방법에 있어서의 구체성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시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2월 28일 전문가 협의회, 현장 적합성 검토,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이 고시되었다.

<표-9> 신구 교육과정의 비교45)

구분	현행	개정	비고	
미술 (국민공통기본교과)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미술과 성격 제시 구성 : 미술의 기능, 미술 교육의 목적, 세부 목표, 내용 영역별 성격과 지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미술과 성격 제시 구성 : 미술의 기능, 미술 교육의 목적, 세부 목표, 내용 영역별 성격과 지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의 의사소통의 가치와 문화적 가치 부분을 강조함. 학교 급별 활동 수준을 삭제하고, 내용 영역별 성격과 지도 방향 제시
	목표	<p>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미술과 목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과의 총괄적인 목표 아래 내용 영역별 하위 목표 3개항 제시 총괄 목표 :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하위 목표 :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과 관련된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미술과 목표와 학년 군별 목표 제시 총괄 목표 :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성, 비평 능력을 기르고, 미술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미적 감수성 나. 창의적 표현과 소통 능력 다. 미술의 가치 판단 능력 라. 미술의 생활화와 미술 문화 존중 학년 군별 목표 : 학년 군별 지도 중점 사항을 제시 가. 초등학교 3, 4학년 : 감각 체험 중심 나. 초등학교 5, 6학년 : 미적 탐구 중심 다. 중학교 : 미술 활용 중심 라. 고등학교 : 미적 가치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 목표 구체화 학년 군별 목표 제시
	내용체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미 조형미 미술과 생활(중학교부터) 미술과 문화(고등학교부터)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의 작품 감상 미술품 감상 미술문화유산 이해(중학교부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환경 시각 문화 환경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과정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 작품 미술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적 체험 영역의 조형미, 미술과 생활을 시각 문화 환경으로 통합함. 미술과 문화는 감상 영역으로 이동 표현 방법과 재료와 용구를 통합하여 제시 표현 과정을 새롭게 추가함. 감상 영역에서 학생 작품과 작가 작품 감상 통합함.

45) 안동선, 『미술과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 및 미술 교과용 도서 편찬 방향』 2008, p.59

구분	현행	개정	비고
미술 (국민공통 기본교과)	교수·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공통적인 교수 학습 방법 제시 ◦ 지도 계획 및 교수·학습 방법 4개항 ◦ 내용 영역별 지도상의 고려할 점 15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 방법을 세부적인 하위항목으로 나누어 제시 가. 교수·학습 계획 5개항 나. 교수·학습 방법 8개항 다. 내용 영역별 지도 14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항목 제시 ◦ 새롭게 개정된 내용 영역의 성격에 관련된 지도상 유의점 추가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에 공통적인 평가 상의 유의점 제시 ◦ 평가 상의 유의점 6개항목과 내용영역별 평가 3개 항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관련 항목을 세부적인 하위항목으로 나누어 제시 가. 평가 계획 3개항 나. 평가 방법 3개항 다. 평가 결과 활용 3개항 라. 내용 영역별 평가 3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항목의 제시 ◦ 새롭게 개정된 내용 영역의 성격에 따른 평가상 유의점 추가됨.
선택 과목	선택과목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선택과목(미술과 생활) ◦ 심화선택과목(미술이론, 미술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과 삶 ◦ 미술 감상 ◦ 미술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의 다양화 및 선택권 확대
	미술과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과 생활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의 '미술'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생활과 관련된 미술 활동의 폭을 넓히고 심화하는 데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과 삶 - 인간의 삶 속에서 미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문화인으로서의 소양과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창조적인 능력과 태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을 좀더 넓은 문화차원으로 확장시킴
	미술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이론 - 예술계열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활용 - 미술의 특성과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감상 - 국민공통 기본 교과의 '감상' 영역을 확장시켜 미술에서 말하고,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감상과 비평의 체계적인 절차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 성격의 변화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상과목의 신설
	미술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실기 - 예술계열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활용 - 미술의 다양한 실기분야에 관련된 표현중심의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창작 - 국민공통 기본 교과의 '표현' 영역을 확장시켜 자신의 생각을 조형화하는 창작의 기초 소양을 길러주는 데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 성격의 변화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작 관련 과목 신설

4. 중등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 및 필요성

미술교육이 공교육에 도입 된지도 벌써 백년 이상이 지났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술문화와 교육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지만 우리나라 미술교과는 제도 속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의 균형적 완성이라는 궁극적 목표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교육여건이나 교육과정 자체도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교육과정상의 미술을 살펴보면 제 6차 교육과정에 비해 30%정도 수업 시수가 축소 배정되었는데 이는 고등학교 1학년 미술과 수업이 줄어들고, 2·3학년은 선택교과로 책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미술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더욱 외면당하는 교과가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전반에 대해 교사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전의 표 현중심의 지도방법에 머물러 모방과 기술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과서도 예전의 구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획일적인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미술교사의 비열정적인 태도와 ‘창의적 교육방법’에 대한 무관심도 학생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중심의 창의적 교육은 일부 미술교사들로 하여금 과제만을 제시하고 과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임하는 소극적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교사자신의 교육에 대한 의욕의 저하는 교사자신의 전공중심에 편중된 학습활동이나 손쉬운 소일학습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미술교사의 문제로는 사범대 출신자와 비사범대 출신자에 따른 교수방법과 전문성의 차이도 학생들에게 편협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⁴⁶⁾ 교사임용에서도 교육관이나 교육애가 고려되지 않은 채 물질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술교사는 이러한 태도

46) 오세곤, 『예술교육이 미래를 연다』, 한국문화 진흥원, 2004, p.61

를 버리고 미술교육자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교과내용에도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비단 교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미술문화와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부재 등 부실한 문화환경 또한 미술에 대한 관심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기⁴⁷⁾란 심신 양면에 걸쳐 급격히 발달하고 변화하여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일컫는데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는 성인에 가깝게 성장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린이 취급을 받는 과도기적 세대로그들만의 동배집단을 형성하고 나름의 독특한 청년 문화를 가지게 된다.

청소년기를 반항의 시기라 부를 만큼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에너지를 발산시켜 자신감을 갖게 될 경우 정서적인 안정감과 함께 건전한 성격발달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생각과 지각, 느낌 등을 직접적으로 투영할 경우 정서적인 안정감과 함께 건전한 성격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미술교육은 경쟁적인 학교생활에서 나오되거나 소외된 학생들이 빠지기 쉬운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신장시켜 주변 환경을 주체적으로 개선하고 미적 생활을 영위하게 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미술 교육은 사고와 정서, 환경에 대한 반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청소년기에 가득 찬 내적인 열정을 미술교육을 통해 적절히 지도한다면 창의적인 표현욕구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창의력 있는 인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지식의 소유여부나 이해력, 종합력, 분석력이나 평가능력 등은 객

47) 어원상 라틴어의 'Adolescence' 동사에서 유래, 성인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성숙으로의 성장을 의미한다.

관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측정되고 있으나 정의적 영역인 태도, 가치관, 창의력은 객관적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술을 통해 내적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것은 지식인이 아니라 사고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전인적인 사람이다.

5. 현대 미술교육의 동향

세계의 미술교육의 역사는 크게 표현중심, 창의성 중심, 이해중심 미술교육이라는 세 가지의 큰 흐름을 통해 흘러왔다. 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술교육도 변해왔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표현중심 미술교육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편이며, 이해중심 교육과정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 통신의 발달과 상호교육의 의지를 통하여 국가간의 경계를 허물고 타문화에 대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변화는 우리나라의 교육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비교적 단일 문화권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우리나라도 세계화, 다원화에 대한 요구는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미술시간에 교과서 내의 다양한 미술작품을 접하면서 그 작품이 가지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매체를 통해 접하는 다문화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서 등장한 것이 다문화 교육인데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문화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착시키려는 교육 개혁 운동을 말한다. 다문화 교육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타문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다문화 미술교육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보다도 차별, 편견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찰머스(F. Chalmers)가 지적한 것처럼 유럽 백인 남성 중심의 미술관을 의문시하며, 미술 내에 가정된 편견과 차별을 드러내어 각각의 독특한 문화가 지닌 우수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인종, 다른 성, 다른 연령,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⁴⁸⁾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은 미술의 전통을 왜곡시키거나 비하하지 않고, 미술이 모든 문화 속에서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찰머스는 “우리는 왜 미술을 만드는가?, 우리는 어떻게 미술을 사용하는가?, 무엇을 위한 미술인가?”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다문화 미술교육과정은 미술의 폭 넓은 기능과 주제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원성이나 문화적 상대주의와 같은 개념을 적용할 때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 서구적 사고가 지배적이고, 미술교육에서는 미술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나 가치판단을 유럽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잘못 받아들일 경우 우리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감이나 위기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미술교육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비판적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시대의 흐름과 함께 현대사회에 등장한 주요한 문화양상으로 등장한 것이 시각문화인데 이것은 단순히 문화현상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21세기 문화산업 시대에 영상문화를 포함한 시각 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문화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시각문화라는 개념은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

48) F. Graeme Chalmers, Celebrating Pluralism Art, Education, and Cultural Diversity(The Getty Education Institute for the Arts Los Angeles, California, 1996).

개념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시각적인 현상들을 포괄하고 있다. 시각 문화는 기존의 미술교육에서 등한시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시각적 문화현상들까지 아울러 미술을 문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시각 문화라는 개념은 기존의 미술교육에서 접근한 엘리트 미술, 고급미술 등의 개념을 보다 함축하고 예술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한 미술의 개념과 차별을 두고, 미술을 하나의 시각적 문화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문화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문화가 문화산업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학생들의 능력 함량과 지도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응성을 기를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인적 인프라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박소영은 앞으로의 포스트모던 미술교육의 변화의 방향성을 열린 시각에서 모던 패러다임의 연계, 사회문화적 맥락 강조, 사회 문화에 대한 시각의 확대, 다원적 접근으로서의 전환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⁴⁹⁾

먼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이나 재활용, 절충주의적 특성에서 볼 때 미술교육에서의 모던 패러다임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포스트 모던적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포스트모던 미술교육에서는 한편으로는 과거의 전통(모던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극복과 변화를 도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전통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방법론적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상황과 맥락의 필요에 따라 모던 시기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미술교육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한다. 시각 이미지의 범람 속에서 시각적 문해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각 문화의 정체성과 더불어 세계문화의 이해의 필

49)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현대 미술교육의 사상과 역사』, 서울: 예경, 2003, pp.227-228

요성이 높아지므로써 미술은 개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의사소통체계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미술의 사회문화적 참여와 저항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모던 시기의 미술교육 패러다임들이 미술자체에 대한 교육적 시각으로 머물렀다면, 포스트 모던 미술교육은 미술과 상호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측면으로까지 확대시키면서 학문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생활세계에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박정애는 현대 활동하고 있는 미술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포스트 모던 시대 미술교육의 시사점을 연구하였는데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술의 정의 또한 좀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미술을 ‘사회 문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표현의 형태인 미술은 도구적으로 가능하며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의 상징 활동이다. 따라서 미술은 지식의 체계로서 의사전달의 역할을 한다.’로 규정한다.⁵⁰⁾

위에서 보았듯이 포스트 모던시대의 미술교육은 사회문화적 맥락성, ‘소서사’로서 정체성, 시각적 문해력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그에 맞춰 소통에 대한 문제나 비판적 안목에 대한 요구도 미술교육의 변화에 따른 논제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50) 상계서, p.229

V. 대안학교의 유용성을 활용한 미술교육

대안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시간에 제한이 없고, 수업방식도 다양하며, 학생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틀 속에 획일적인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미술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 그러므로 앞의 대안학교의 사례를 통해 제시되었던 유용적 성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교육에 적용하여 개선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박물관 관람을 통한 현장 교육, 청소년기의 미술치료교육, 다문화 미술교육, 생태주의 미술교육 등을 그 방향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1. 미술관·박물관 관람을 통한 현장 교육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안학교는 교사중심이 아닌 학생위주의 교육으로 체험을 통한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장에 나가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교육을 자주 하는 편이며, 수업시간의 변경이 유용하기 때문에 미술관·박물관 관람을 통한 현장 교육을 하기에 좋은 편이다.

현 공교육 체제에서 미술과 감상지도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지도되는 감상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 한계점으로는 시간부족, 감상 자료에 대한 제한점, 지도자의 능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술관·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학생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를 수시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미술수업 시수가 학교 미술교육에서 감소되는 현실 속에

서 경험활동, 표현활동, 감상활동의 과정을 미술관·박물관의 전시와 프로그램과 계획성 있게 연결하여 미술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미술관·박물관 교육에 대해서는 20세기 초부터 많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정의는 다양하여 ‘뮤지엄(museum)’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을 박물관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실제적 차원에서 말하면 소장한 실물자료를 전시하여 방문자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봉사로서의 교육활동으로 보는 것이 구체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미술관과 박물관은 전시된 자료에 의거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51)

미술관 교육에서의 구체적인 교수·학습활동의 유형은 국내의 경우, 실기위주의 워크숍, 갤러리 대담, 안내 관람 등이 있다. 국외의 경우, 실기위주의 워크숍, 갤러리 대담, 안내관람 등이 있다. 국외의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령 영상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특별기획전, 학생 자신의 관람 안내, 게임을 통한 셀프 가이드 등이 있다. 국내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박물관 관람뿐 만 아니라 실제 관련 문화재 만들기 같은 실기활동 혹은 답사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학교와 미술관은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 방법을 가진 기관이지만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인간교육에, 평생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 형성’이란 관점으로 보아서 둘 다 인간으로서 ‘자기 교육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두 기관은 서로 연계하여 ‘공동작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미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은 학교 문화 예술교육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와 미술관의 연계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인 공모를 통하여 개발되고 실행된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 연계된 프로그램 중 좋은 사례를 보자면 미술

51) 박휘락, 전게서, p.353

관 관련 프로그램으로 2005년 인천여중 학교 축제 미술전시 프로젝트 ‘사-이’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학교축제기간을 이용하여 미술전시를 기획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급우 간에 자유롭게 모듬을 구성하고, 모듬별 주제를 설정하여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고, 다른 모듬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시각매체로 표현을 계획하고 학교 공간 곳곳에 전시하는 등 전시물을 통해 참여자들의 반응을 반영하고 소통하는 등 전시 전반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미술의 총체적인 과정을 경험하는 진행형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미술 수업을 학생들의 삶 속으로 확장되도록 하였으며, 축제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개념과 공공미술 개념을 수용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외에도 스페이스 빔에서 기획한 일련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미술관, 지역 작가,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미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도모하고 미술 전시에 대한 대안적 실천을 모색한 계기가 되었다. 스페이스 빔에서 실시한 ‘2005년 에듀 아트 페스티벌’의 주제 ‘Who我you’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주제를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교육활동, 프로그램 진행, 작품전시의 세 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진다.

<도판-7> 2005 아트에듀페스티벌 ‘Who我you’의 진행 모습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사회 속에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에는 학생 뿐 만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발히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립 현대미술관은 미술(관)교육 전문가, 학교현장 교사, 작가 등과의 만남을 통해 교사들이 창의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기획, 실행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술관과 공교육의 연계성 모색을 위해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⁵²⁾

학교에서 미술관·박물관을 이용한 감상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10>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표-10> 학교에서 미술관·박물관을 이용한 감상학습의 절차⁵³⁾

절 차	내 용	공간	참여자
미술관 학습의 전체 구상	· 학교 학년 연간 교육 계획에 의한 미술관 감상 학습의 구상과 계획 · 미술관 전시 내용과 기간의 확인	학교	교사
미술관과의 사전 교섭	· 미술관 전시정보에 의하여 견학 계획을 알리고 예약 (전화 등으로 교육담당자와 직접 교신)	학교 미술관	교사 미술관 담당자
미술관과의 사전 상담과 협의	· 교사(인솔자)는 직접 미술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당일의 학습계획, 학습내용, 학습방법, 미술관과 담당자와 교사의 역할 분담, 자료의 제작 및 준비에 대한 협의 · 교사자신의 사전 견학 · 미술관 관련 팸플렛, 출판물 등의 수집	미술관	교사 미술관 담당자
미술관감상학습 계획 작성	· 감상학습의 목표와 내용, 방법, 자료, 미술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학습계획의 수립	학교	교사
사전 학습	· 미술관 학습의 목표와 내용 이해 · 미술관 학습의 방법, 준비물의 확인	학교	교사 학생

52) 김성숙 외,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학지사, 2003, pp.319-323

53) 박휘락, 전계서 p. 76

	· 미술관의 사정이해		
미술관 학습 (당일)	· 미술관과의 사전 협의에 의한 학습 진행 · 오리엔테이션과 학습실시	미술관	교사 미술관 담당자 학생
사후 및 발전 학습	· 감상결과에 대한 보고학습(그룹별, 주제 별) · 미술관 감상 학습의 반성 · 관련 학습내용을 과제 등으로 발전시킨다. * 과제에 의하여 자유로이 연구하도록 하고 학기나 학년말에 보고회를 갖는다. · 앞으로의 미술관 이용에 대한 이야기	학교	교사 학생

2. 청소년기의 미술치료교육

대안학교 중에는 일반 공교육에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이나 일반 공교육에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많다. 현재 몇몇 대안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미술의 치료적 역할은 다양한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치료’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therapia’에서 유래하였고, 그림그리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환자의 내면세계를 표출하게 하고, 그를 통해 환자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며, 보다 적응적인 상태로 이끌어 가는 치료 방법을 말한다.

미술이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한편, 미술치료의 과정과 잠재성은 실제적인 미술치료활동을 통해 인간이 성장하고 재활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술활동의 제작과정을 통해서 자기개발과 보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치료방법인 것이다.

전형적인 미술실기 시간에는 모델을 그리거나 정물화를 그리거나 숲속을 거닐면서 야외스케치를 할 것이다. 대상을 자신이 본대로 비례와 명암, 색채 등의 기술적인 표현 기교와 예술가적인 감각을 강조하면서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치료는 예술가가 자신의 작업을 하는 것에 가깝다. 느낌, 생각, 상상 같은 자신의 내면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미술 치료가 미술 기교 또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강조하려는 것은 외부세계에 대한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간혹 미술시간에 자신이 상상한 것을 그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미술치료에서 내면세계의 이미지나 사고를 중시하고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미술의 치료양식이라는 생각에 기초했기 때문이다.⁵⁴⁾

미술교육에서 치료적 효과성을 알리기 위하여 미술치료의 개념과 미술교육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며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⁵⁵⁾

첫째, 미술교육이 미적요소와 기술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둔다면, 미술치료는 미적 요소나 기술의 습득은 치료목적에 종속적인 것이고 미술작업 ‘과정’ 자체에 좀 더 비중을 둔다.

둘째, 미술치료는 치료라는 의학적인 입장을 미술교육은 교육이라는 입장을 취하므로 서로 차이를 갖지만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보다는 과정상의 변화를 중시하고 그 과정상에는 창의성, 사고력 증진이나 안정감, 만족감 등의 감정적 목표가 중점으로 차지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미술의 두개의 줄기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교육은 전반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대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술치료는 개선의 목적으로 개개의 아동과 청소년의 상황이나 상태에 맞추어서 방법이나 접근이 달라진다.

54) 방영주,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술치료교육」,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41

55) 조윤희, 「미술치료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통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p.23

오늘날 청소년들은 급격한 사회적,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가정, 학교, 또래집단에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겪거나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미술치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욕구과 갈등에 대한 교육적 접근과 치료적 접근으로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술치료센터와 학교가 연계하여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11> 치료적 미술활동 프로그램 계획안⁵⁶⁾

프로그램명 : 나의 씨앗 그리기	
수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 : 표현 (심상의 표현) ▶ 학습목표 : 상상을 통해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고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주제선정의 의도 :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이 씨앗이 되어서 상상한다. 그 씨앗은 무엇이 될 것인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있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상한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고 나와 환경과의 관계를 알고 성장의 욕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이해, 평가할 수 있고 자신을 타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과제 제시(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 동기유발 눈을 감게 한다. 자신이 씨앗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있고 싶은지 생각하게 한다. - 학습 목표제시 - 학습활동 안내 : 개별학습 → 발표 →감상 • 학생 : - 눈을 감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한다. - 눈을 뜬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학습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 주제 파악 : 명상을 통해서 상상한 씨앗과의 모습과 환경을 그린다. - 표현하기 : 상상한 것을 스케치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재료로 채색하고 자신의 그림 내용과 느낌을 뒷장에 쓴다. •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상을 통해 상상한 모습을 스케치 한다.

56) 김정은, 「청소년기의 치료적 미술활동 프로그램 제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상황이 나타나도록 그린다.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채색하고 제목을 선정한다. - 그림의 내용과 느낌을 자세하게 적는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 및 감상 (15분) • 작품 발표 및 감상 -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 한 명씩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발표한다. -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한다. - 작품감상 기록지 쓰기 - 평가 및 반성

3. 다문화 미술교육

우리나라의 현행교육은 전인교육을 지향하지만 그 실상은 획일화된 지식전달에 전력을 다하고 보이지 않는 틀 속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대안학교는 이러한 차별을 지양한다. 사회적 약자도 장애도 피부색도 학교 부적응 학생도 대안학교에서는 구별 없이 포용하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는 점점 다원화되어 가고, 국제간의 교류가 가속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들을 포용하는 교육적 여건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실은 그리하지 못하다. 부천에 있는 ‘새날학교’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대안학교이다.

다문화 된 사회에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여러 민족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원적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문화간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다문화 교육을

통해 길러나가야 할 것이다.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자유를 위한 교육’ 이고,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민주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의 주요한 모델로 정착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미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술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사상과 그곳의 정서, 및 가치의 방식 등 그 시대의 문화적 지식과 전달의 유형이며, 그 민족 문화의 형태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문화의 총체적인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여러 민족의 문화를 관찰해보면 그 문화 속에서 미술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고, 문화의 가치 내에서 변화를 나타내므로 우리 자신의 문화와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그 시대의 문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 교육의 효율적인 한 방법으로 미술적 접근방안을 들 수 있는데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쉽게 배우며, 친구와 아이디어 나누기, 재료 함께 사용하기, 교대하기,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협동작업을 통하여 자신이 일하는 방법과 시기 알기 등의 능력과 태도를 개발시킬 수 있다.

미술을 통한 다문화 교육에서는 민족 우월주의에서 탈피하여 인종적인 큰 집단과 세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차이점을 탐색해 보면서 문화를 비교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현상으로서 미술을 가르치는 것이며,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⁵⁷⁾

다문화 미술교육의 과정을 제시한 바바넬(Patricia Barbanell)⁵⁸⁾과 빌링스(Mary-Michael Billings)⁵⁹⁾의 견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미술교육의 방법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57) 이수경 외 2인, 『문화의 이해를 돕는 미술교육 프로그램』, 서울:양서원, 2003, pp.27-31

58) 바바넬(Patricia Barbanell, op. cit, pp.217-227)

59) Mary-Michael Billings, Issues vs. Themes : Two Approaches to a Multicultural Art Curriculum, Art Education, January 1995, pp.21-24, pp.53-56

첫 번째는 미적-개인적 접근으로 전통적인 문화적 다원주의에 바탕 한 것으로 다양한 문화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문화 미술 교육과정에서 미술 수업에서 교사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어떤 아이디어나 주제를 학생들로 하여금 탐색하게 하며, 문화에서 만들어진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 또한 수업목표는 학생 개개인의 미적 경험에 입각하여 표현 수업이 전개된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이나, 현재의 관점으로 탐구하여 다문화적·문화교류적 관점을 도입한다. 이 접근에서 미술은 개인의 생각이나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이끌고, 개인적인 미적 관점이 잘 나타나 있는 다양한 사회의 미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미술가들과 학생들 간에 대화를 촉진시킨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미적-개인적 접근은 어떠한 시각 이미지나 형태라도 공부할 주제와 관련이 있다면 미술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미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 접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미술 문화의 전통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윤리적 사회적 접근으로 갈등이론에 바탕으로 한다. 윤리적-사회적 접근은 사회 그룹들간에 힘의 불평등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되며, 미술에 있어서 제1차 세계대전 중의 다다이즘과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맥락을 같이하며, 교육에 있어서는 사회 재건주의 교육과정 개발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적 사회 재건주의 교육은 직접적으로 인종·사회 계급·성·장애등에 억압을 다루며, 미술 수업은 주로 일반적인 사회 이슈에서 출발한다. 또한 수업에서 완성된 미술작품이 맥락 적인 분석을 통해 역사적으로 탐구되었을지라도 학생들 자신의 경험과 학생들 자신의 생활과 공동체의 현황, 즉 생태학적 위기, 표현의 자유, 기술 사회에서의 소외, 페미니즘에 등에 대한 이해가 강조된다. 이 접근의 목적은 사회적 이슈들을 비판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미술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고, 사회 변화와 해방을 추구하는데 있다. 미술교사들은 각 문화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유럽 중심적인 교육과정을 계속 유지하려

는 현상에 도전하고 교육과정의 근원을 넓힘으로서 사회의 변화를 촉진 시킬 것을 요구한다. 60)

다문화 미술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모더니즘적 사고의 한계에서 벗어나 예술적 전통을 소개시키며 문화적 사회 경험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타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좀 더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되면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문화주의를 가장 잘 주입할 수 미술교과를 통해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 시점에서 다른 문화권의 미술에 대해 각각의 좋은 점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것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향상 시킬 수 있고, 미술문화 교육에서는 인간의 소중한 능력인 감성과 직관의 축을 통하여 넓은 시각과 긍정적 사고가 생성 될 것이다. 아래의 <표-12>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미술문화 프로그램을 제한 것이다.

<표-12> 중학교 1,2,3학년을 위한 미술문화 프로그램61)

프로그램명 : 인물의 표정 (회화 영역)	
수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학생 : 중학교 1, 2, 3 학년 ▶ 본시 수업 주제 :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배출된 초상화를 감상하고, 문화에 따라 동·서양의 인물 표현이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 이해하며, 인간의 느낌과 감정이 느껴지는 표정과 장면을 포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 본시 수업목표: 다양한 시대와 문화에서 배출된 초상화를 감상하고, 인물이 지닌 생각이나 느낌, 표정, 감정 등을 관찰하여 작가가 인물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의도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의 표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방법, 조형 요소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주제에 적절한 표현 재료 및 용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60) 정정숙, 「 다문화 사회를 위한 민속 미술지도의 방향과 시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7, pp.11-15

61) 이수경, 상계서, pp.131-132

	<p>▶ 지도상의 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의 표정이나 느낌을 관찰하여 이를 표현하는 방법과, 작가의 느낌과 생각을 작품속의 인물 표정에 담아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 기법, 주제의 해석, 개성이 잘 나타난 미술품을 비교, 감상하고, 표현 재료에 따라 각자의 느낌을 자유롭게 지도하도록 한다. -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배출된 초상화에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닌 느낌과 표정을 미술품을 통해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작품이 제작된 시기와 그 배경 요인들이 미술품과 미술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물과 과제를 점검한다. • 수업 목표를 인식한다. • 동·서양의 초상화를 감상하고, 인물의 생각과 느낌, 감정이 얼굴의 표정과 전체적인 화면 구성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 시대적·문화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인물의 초상화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 시대적·문화적 차이 외에도 주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과 표현 재료 및 용구에 의해서도 인물의 표정과 느낌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의 얼굴 표정을 관찰하고, 인물의 느낌과 생각, 그리는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 한다. • 개인 작품이나 협동 작품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고, 재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 개인 작품의 경우 인물의 특징과 감정이 잘 표현되었는지 살펴며 마무리 하여 완성한다. • 협동 작품의 경우 인물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열한 후 가장 적합한 순서에 따라 연결을 완성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한다. •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차시 수업 내용과 준비물을 숙지한다. • 작품을 보관한다.
평가	<p>1) 평가 방법: 실기평가(실기시험+관찰법), 자기 및 평가 보고서법</p> <p>2) 평가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미술품과 학생의 작품 속에서 인물표현의 의도나 느낌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 인물의 다양한 느낌과 감정, 생각을 재료와 용구,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 - 시대적·문화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인물의 초상화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 시대적·문화적 차이 외에도 주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과 표현 재료 및 용구에 의해서도 인물의 표정과 느낌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 수업 태도가 진지하고 올바른가?

학습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다양한 시대 및 문화권의 인물초상화 참고 작품 등 ▶참고자료 목록 - 자화상(수묵담채/38.5x20.50, 윤두서(1688-1715/조선시대) - 이하응 초상(견본 채색/126.8x65.0), 이한철 • 이창욱(조선시대) - 담배를 피우는 자화상(유채/51x45), 1889년 작, 고희(Goch, Vincent van/1853-1890/네덜란드) -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유채/38x46), 1889년 작 고갱(Gauguin, Paul/ 1848-1903/프랑스) • 학생: 평면 및 입체 표현 재료 및 용구
------------------	---

4. 생태주의 미술교육

대안학교는 생명 존중과 자연 친화적인 생태계 회복을 강조하고 주요 이념의 바탕에 생태주의를 두고 있다. 대안학교에서는 생태계 위기에 봉착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활방식에서 생명존중과 자연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 교육한다.

생태주의(ecologism)는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개념으로 아직 그 의미나 특성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자나 문헌에 따라서 생태학적 세계관, 생태중심 사상 같은 말들로 쓰이고 있으며 생명사상, 자연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근래에 와서 환경 파괴로 인한 인간존재에 대한 지속성의 위기로 환경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여겨지고 있고, 생태계의 파괴는 교육관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존의 인간중심의 교육에서 생태중심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술교육에서도 생태주의 관점들이 반영된 교육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술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다양한 조형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자기체험을 확장하고 미적인 자기교육의 힘을 육성하고 스스로 자기실현을 돕는다는 점에서 미술교육과 생태학적 교육

의 지향점이 유사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생태주의 미술교육은 기존의 미술교육과 사상적, 내용적, 방법적인 측면이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술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사상적인 면에서는 동양의 전통사상이나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는 생명가치를 존중하고 자연 친화적 삶을 추구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접목하는 미술교육이다. 물론 기존의 ‘환경미술’, ‘자연미술’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어져 왔지만 단지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과는 다르게 생태주의 미술교육은 생태의 경험으로 내적 변화를 요구하는 미술활동이다.

생태주의 미술교육의 성과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그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생태학적 미술교육이 가져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⁶²⁾

첫째, 균형교육이 되어야 한다. 생태학적 미술교육은 균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 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을 균형 있게 학습하고 미술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미술교과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로 삼아 심사숙고하려는 태도와 경향성, 실천 의지를 함양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공동체 교육이 되어야 한다.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개인주의와 국가·민족 이기주의의 팽배 현상은 우리공동체의 기반을 많이 훼손하였다. 따라서 생태학적 미술교육을 통하여 자연미를 알고, 훼손된 자연애와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회복하고, 이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가치관 교육이 되어야 한다. 실천에 있어서 모든 결정들은 윤리적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실행되어 지므로 생태학적 미술교육에서도 도덕적 민

62) 김지연, 「미술교육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 중학교 미술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p.17-18

감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의지, 도덕적 습관 등을 총체적으로 경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넷째, 테크놀로지에 바탕을 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샘프슨(Sampson)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귀로만 들은 정보의 20%, 눈으로 본 정보의 30%,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보의 50%, 말한 정보의 80%, 직접 체험해 본 90%를 기억한다고 한다. 이것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수 기법이 학습과정과 기억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환경오염과 파괴, 생태학적 위기, 인간의 생존과 건강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을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행위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생태학적 미술교육은 갈등의 합리적 해결능력, 비판적·창조적 사고능력, 협동능력 등과 같은 민주 사회적 기능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환경 문제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제 7차 미술교육과정은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곱째, 평생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환경교육은 배타적으로 학령기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연령의 사회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다양한 체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체험과 사고의 두과정은 밀접히 상호 연결되어 있다. 즉, 체험을 통한 구체적인 표상이나 관념이 풍부하게 되어야만 추상적 사고도 더욱 발달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계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과활동과 교과 외 활동,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언론매체 포함)의 연계를 통한 지도에 관심을 기울여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과거의 미술교육은 미술본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암기식 주지주의 교육

으로 학생들의 독창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현 공교육 속의 학생들은 자연과 접촉할 기회도 적고, 자극적인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간접적인 문화적 경험만을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생태주의 교육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힘든 요소가 많겠지만 점차적으로 학생들을 자연과 만나게 하고, 또래와 직접 부딪히며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학생들의 풍부한 감수성과 감각을 살리는 바람직한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의 미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한 책임성 있는 태도를 기르고, 거시적으로는 지구환경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래의 <표-13>은 미적체험 단원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생태미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표-13> 중학교 1학년을 위한 생태미술교육 프로그램 63)

프로그램명 : 자연에서 조형으로- 숲 속 소리 찾고 그리기	
수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영역: 자연미 찾아 감상하기 • 환경 및 자료: 주변의 자연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신비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 자연이 우리와 관계 맺은 관계성과 자연의 다양성, 공존성, 순환성에 대해 몸으로 느껴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 학습준비: 선수 학습 및 요소(탐구 학습지를 통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자연미와 조형미의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사 사전 준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주변의 여러 환경 중 수업에 적합한 장소를 사전에 조사해 놓는다. - 학생들을 편한 복장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 한다. - 사전에 준비물을 예고해 준비물이 잘 갖추어 지도록 한다. • 생태적 관점에서 이 수업의 필요성: 이 수업의 목적은 생태적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껏 지나쳐 오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 우리가 어떤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몸으로 느끼고자 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다,

63) 상계서, p.112

도입	<p>▶도입(10분): 자연과 만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주변에서 미리 조사해 주었던 장소로 학생들을 이동한다. - 평소 학생들이 가졌던 숲 속 소리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 오늘의 수업에 진행에 대해 설명한다. <p>▶ 학습 목표 예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신비로운 질서와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 자연이 우리와 관계 맺은 관계성과 자연의 다양성, 공존성, - 순환성에 대해 몸으로 느껴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전개	<p>▶ 전개(20분): 자연을 느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의 학생들은 자기가 편한 자리를 잡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 눈을 뜨고 사방을 조용히 바라다본다. -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자기가 들은 숲 속의 소리를 헤아린다. <p>* 이 수업은 나와 숲이 하나가 되는 감성을 기르는 것이 수업 목표이기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p>
정리	<p>▶ 정리(15분): 느낌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가 숲속에서 들은 소리를 각자 발표해 본다. - 자기가 들은 소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소리를 색이나 선으로 표현해 본다. - 소리도 색이나 선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사전 지식 없이 숲 속에서 받은 느낌 그대로를 표현하도록 한다. - 각자가 표현한 그림에 제목을 붙이고 그 느낌을 정리한다.
평가	<p>▶평가 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에서 얼마나 몰입하고 그 느낌을 받았는가? - 자연에서 느낀 아름다움을 색이나 선으로 잘 나타냈는가?

VI. 결 론

21세기는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 ‘문화의 시대’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며, 획일화된 사고보다는 창조적이고 주체적 사고를 갖춘 사람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볼 때, 인간의 독창성과 창의성의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미술교육은 오늘날 시대의 흐름과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서 미술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오늘날 근대적인 개념에서의 미술교육이 학교교육에 도입된 지 100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교육의 양적 팽창과 함께 미술교육도 외면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정작 미술교육의 현실은 학교에서 10년 이상을 배우면서도 ‘미술은 어려운 것, 재능이 있거나 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 등으로 치부되면서 학생들의 관심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방면에서의 협력과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위와 같은 교육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대안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주체성을 잃은 공교육과는 달리 학생중심의 수업으로 미술을 통해 창작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열린 교육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미래생활에 필요한 수업이 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현행 미술교육에 대한 몇 가지 개선점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미술수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수 및 공간이 확

보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 수에 비해 학교의 미술실이 너무 협소하여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미술실이 없는 학교도 있다. 또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의 적은 시수로 다양한 수업이 어려우며 제한적인 미술 활동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국가와 학교의 재정적 지원이다. 미술수업에서는 다양한 재료의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충분한 재료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미술 재료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문화 단체,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인식의 전환이다. 미술교사의 안일한 태도와 자기 전공 위주의 획일적인 지도방법은 학생들에게 미술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 또한 강의 위주의 교사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사 스스로 다양한 교수방법과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고 교사연수 프로그램과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시대와 삶을 위한 미술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미술수업은 창의력을 무시하고, 모방을 하거나 교과서의 틀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을 기를 수 있는 미술수업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대안학교의 유용성을 받아들이고, 현대 미술의 흐름과 함께 교육에서도 다문화 미술교육이나 시각문화 교육, 자연의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등 다양한 미술교육의 형태가 공교육에도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것은 지식인이 아니라 사고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전인적인 사람이다. 미술교과는 타 교과에 비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후의 삶 속에 응용되어지고, 꾸준히 영향을 주는 교과목이다. 지금이라

도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하여 점차 개선해 나간다면 미술은 교과목으로서 위상을 찾고,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교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주역인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삶의 본래적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길일 것이다.

참고 문헌

< 단행본 >

-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서울:박영률 출판사, 2002
- 강태종·이종태·이명준, 『새 학교 구상: 좋은 학교의 조건과 그 구형방안 탐색』,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6
- 김성숙 외 8인,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학지사, 2003
- 김은산 역, 『니일의 인간교육사상』, 서울:배영사, 1998
- 김정 외 12인, 『미술교육학원론』, 서울: 예경, 1998
-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서울:시공사, 2003
- 오세곤 외 『예술교육이 미래를 연다』, 서울: 한국문화 진흥원, 2004
- 이종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서울: 민들레, 2001
- 이종태, 『대안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육연구, 1998
- 이선숙,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이야기』, 서울: 교육과학사, 2001
- 이수경 외 2인, 『문화의 이해를 돕는 미술교육 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2003
-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현대 미술교육의 사상과 역사』, 서울: 예경, 2003
- 정윤경, 『발도르프 교육학』, 서울:학지사, 2004
- A.S.니일 지음, 손정수 역, 『섬머힐』, 서울: 산수야, 2002
- F. Graeme chalmers, 『Celebrating Pluralism Art, Education, and CulturalDiversit』
(The Getty Education Institute for the Arts Los Angeles, California),1996

< 정기 간행물 >

- 박찬국, 『학교 밖과 안을 이어주는 대안교육』, Art in Culture 8월호, 2003
이토 히로시, 김경옥 역, 『뉴욕시 공립 대안학교-시티에즈스쿨』, 민들레 제14호, 2001

< 논문 >

- 김태용, 「대안학교에 있어서의 미술교육: 경기, 충남권의 대안학교의 미술교육」,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김태정, 「도시대안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준수, 「도시형대안학교 미술프로그램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김정은, 「청소년기의 치료적 미술활동 프로그램 제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김지연, 「미술교육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 중학교 미술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박지숙, 「대안학교 미술교육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박근이, 「대안학교 미술과 교육현황-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박준기, 「초·중등단계 대안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 정책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박지연, 「대안학교의 미술교육 사례를 통해 바라본 창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방영주,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술치료교육」,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설연경,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미술교육프로그램 분석-도시형 비인가 전일제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신혜민,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발전가능성 탐색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엄세라, 「대안학교 교육 체제에 관한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조윤희, 「미술치료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통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최현득, 「대안학교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계명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인터넷 >

<http://www.do-dream.or.kr/> 광진 도시속작은학교 사이트

<http://www.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 사이트

<http://www.dreamwe.org/>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사이트

<http://cafe.daum.net/milart>-밀머리 미술학교 카페

<http://www.mindle.org/> 민들레 사이트

<http://www.shure.or.jp/> 일본 도쿄 슈레학교 사이트

<http://www.seine.hs.kr/> 세인고등학교 홈페이지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education in the fine arts and improvement points through the educational cases of fine arts in the alternative school

Kim, ka Young

Major in Fine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day, having developed very fast, the society asks us new vision and the initiative spirit. 21C is called as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This is happening over every fields such as politics, society, economy and education is not an exception.

But, what happen today our country education? The education of our country has been estimated low qualitatively. This is detected more certainly in crisis of korean public education , such as collapse of ecclesiastical authority, group bullying, school violence, missing of human education, increase of private education fee.

Alternative school excited socially since the mid-90's. Alternative school is doing alternative teaching or various attempt to grope school form about public education.

Alternative school means that these practice is proceeded in school form. There are free school type alternative school, ecologic type alternative school, re-adjustment type alternative school, essence idea pursuit type alternative school.

Biggest purpose of alternative school are raising human being who are needed in this rapid-changing age through education for the whole man, and respecting the

students as themselves unlike the usual education system. This may be ideals of education corresponding the one of art education. The art education is the basis of sentimental education and the fine art education figures the mind and souls with human emotions. this art education act deeply in the consciousness world because this educations accompany the sensitive perception with the images and impressions.

Therefore one of the purposes of the art education is raising the sensuous attitudes, imagination, initiative, critical thinking through the various art activity. The other one is raising perfect human beings who understand the art culture and have the ability to develop the art culture. But position of art is very low in the school area nowadays. Art education of alternative school finds position as more important object class, and puts the purpose itself focusing the students. This study finds the fundamental reasons why the art education is estimated low and wishes to present the art education. I wish to present for desirable direction so that art education of general school can do newer attempt.